

보험동향 2020년 봄호

총괄	조영현 (연구위원)
경영환경	최예린 (연구원) 김유미 (연구원)
보험동향	최 원 (수석연구원) 김혜란 (연구원) 김유미 (연구원)

■ 목차

I. 경영환경

1. 경제 / 2
2. 금융 / 10
3. 자금흐름 / 17
4. 규제·제도 / 20

II. 보험 동향

1. 성장성 / 23
2. 수익성 / 46
3. 리스크 / 56
4. 시장경쟁 / 69

I. 경영환경

- 2019년 말 주요 경기 하방위험이었던 미·중 무역분쟁이 완화되면서 세계 주요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,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기 둔화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임
 - 특히 세계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중국을 중심으로 2020년 2월 크게 하락하는 등 제조업 경기가 다시 수축 국면에 들어섬
- 우리나라도 2019년 4/4분기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
 - 소비자심리지수 및 물가상승률 등 주요지표가 2020년 2월에 하락함
 -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9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
-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3월 17일 기준금리를 1.25%에서 0.75%로 인하함
 -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, 실물경제에 대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
-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,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채권 발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이 단기물에 비해 약세를 보이며, 장단기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됨
 - 신용평가사들의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며, 3월 신용스프레드(회사채 AA-국채 3년물)는 75bp까지 확대되어 201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
- 2019년 가계부문의 채권과 국내주식 거래는 감소한 반면 현금 및 예금 거래가 확대됨
 -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.7%로 최근 10년 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38.8%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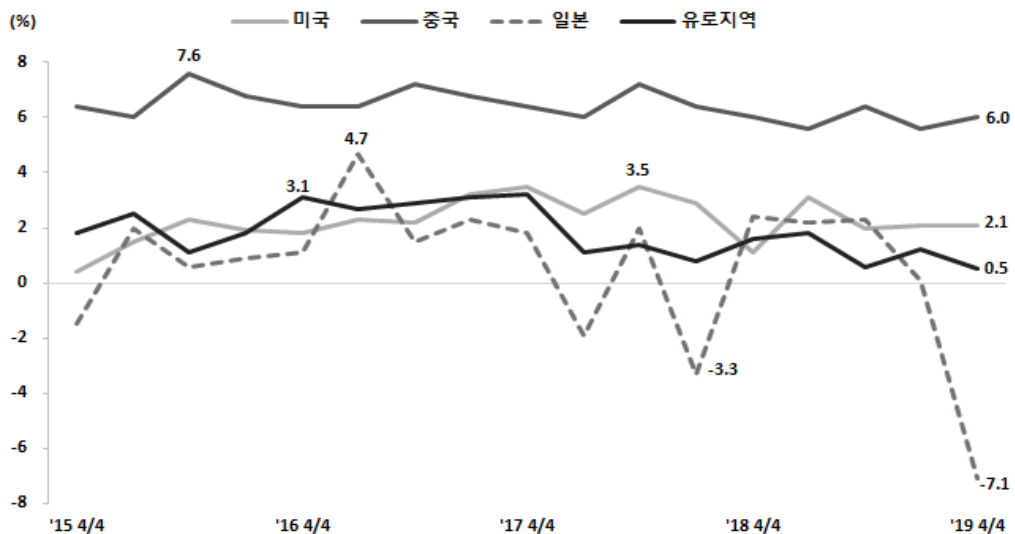
1. 경제

가. 세계경제

■ 2019년 4/4분기 주요국 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, 특히 일본은 -7.1%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

- 2019년 4/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.1%로,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였고,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.0%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0.4%p 상승함. 유로지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0.7%p, 7.2%p 하락한 0.5%, -7.1%를 기록함
- 일본의 4/4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세 증세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및 태풍 피해 등으로 크게 하락함¹⁾

〈그림 1〉 주요국 경제성장률



주: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, 계절조정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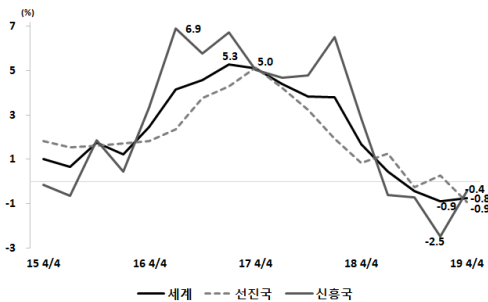
자료: Bureau of Economic Analysis(2020. 3); 중국 국가통계국(2020. 1); 일본 내각부(2020. 3); Eurostat(2020. 3)

■ 2017년 3/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 증가율이 2019년 4/4분기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반등함

1) 일본 내각부(<https://www.cao.go.jp>)

- 2019년 4/4분기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.2%p 하락한 -0.9%를 기록하였고,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.1%p 증가한 -0.4%를 기록함
- 2019년 4/4분기 선진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.9%p 하락한 -1.3%를 기록하였고,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.4%p 증가하여 1.8%를 기록하며 반등함

〈그림 2〉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임

자료: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(2020. 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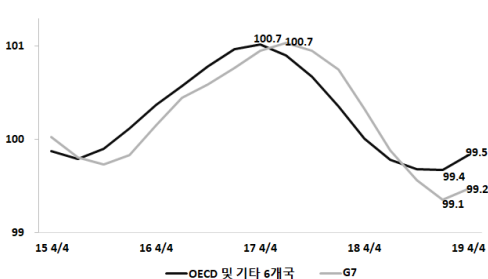
〈그림 3〉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



■ 세계 경기선행지수²⁾는 2017년 4/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 4/4분기에 반등함

- 2019년 4/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9.2로 전분기보다 0.1 상승하였고, 미국과 중국은 각각 0.2, 0.4 상승한 99.1, 99.7을 기록함
- 한편 유로지역의 경기선행지수는 99.2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였고,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99.3을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0.2 하락함

〈그림 4〉 세계 경기선행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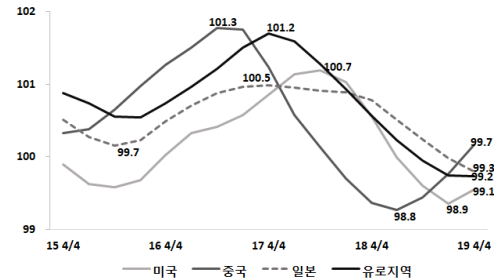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

2) 기타 6개국은 브라질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러시아, 남아프리카공화국임

자료: OECD

〈그림 5〉 주요국 경기선행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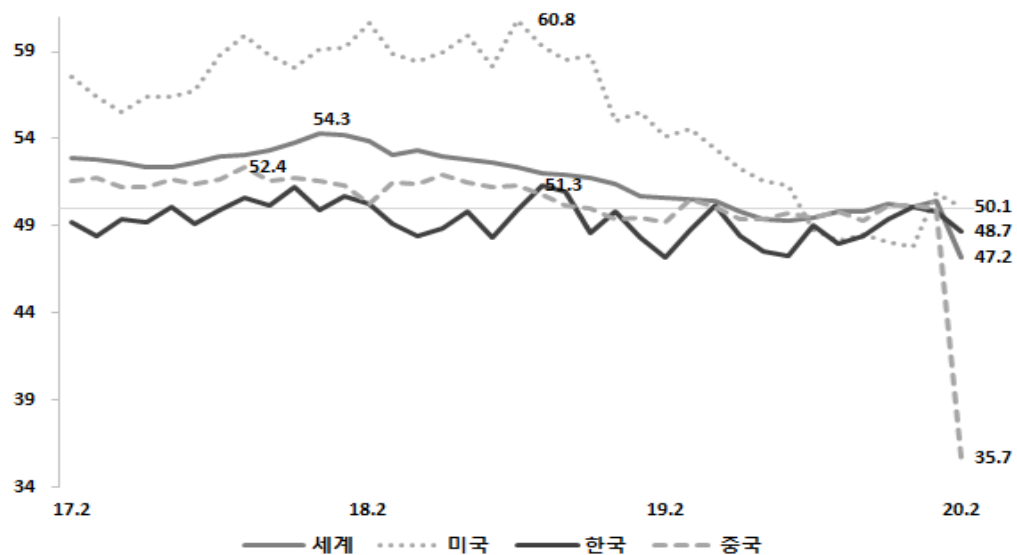


2)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,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상승,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

■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³⁾는 2019년 7월 최근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반등하였으나 2020년 2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함

○ 2020년 2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전월 대비 3.2 하락한 47.2를 기록함
- 특히 중국의 경우, 2020년 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가 전월 대비 14.3 하락한 35.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치(38.8)보다 낮음

〈그림 6〉 제조업 PMI



주: 전분기 대비, 3개월 이동평균임

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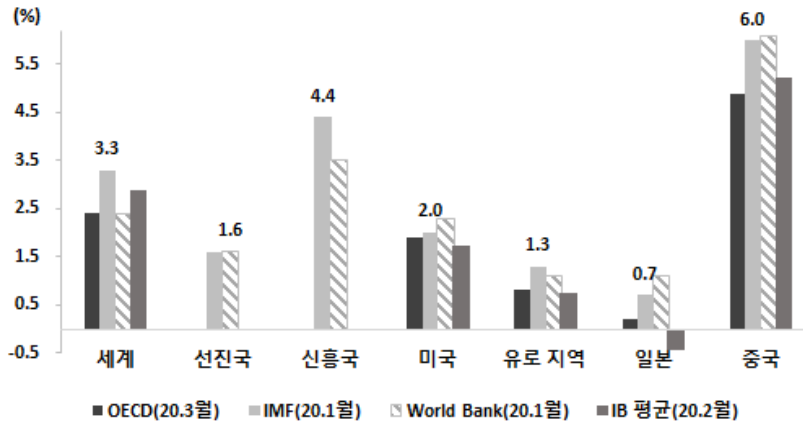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기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고려하여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

○ OECD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및 주요국 경기 부진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,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.9%에서 2.4%로 하향 조정함⁴⁾

3) PMI(Purchasing Managers' Index)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, 신규주문, 수출주문, 취업, 부품구매, 주문잔고, 납품업체 배송, 재고 등 11개 항목임

4) OECD(2020. 3), *Interim Economic Assessment*

〈그림 7〉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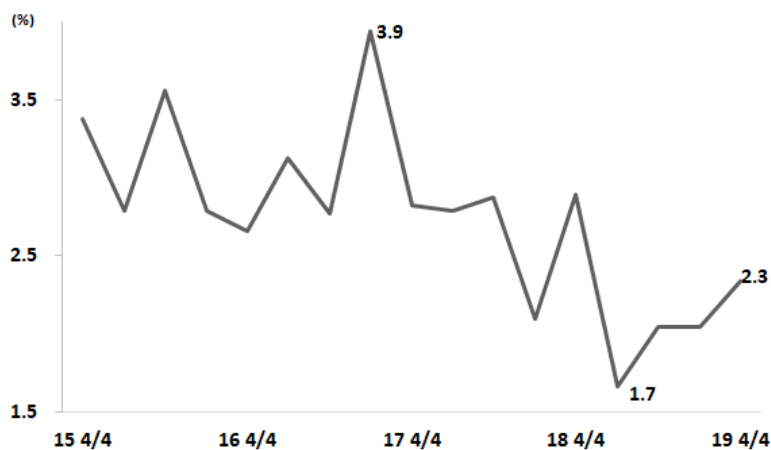
자료: IMF, OECD, World Bank, 4개 IB 평균임

나. 국내경제

■ 2019년 4/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

○ 민간소비 및 기계·건설수주의 증가가 2019년 4/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 증가에 기여하여 전분기보다 0.3%p 상승한 2.3%를 기록함

〈그림 8〉 국내 경제성장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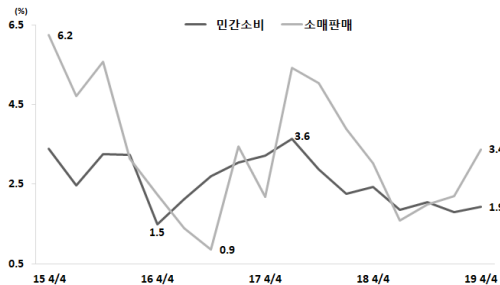
주: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■ 민간소비 및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는 모두 2019년 4/4분기에 회복세를 보였으나,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

○ 2019년 4/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1.9%, 3.4%를 기록함

○ 2019년 4/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미·중 무역분쟁 완화조집 등의 영향으로⁵⁾ 전분기보다 4.9 상승한 100.0을 기록하였으나, 2020년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월 대비 7.3 하락한 96.9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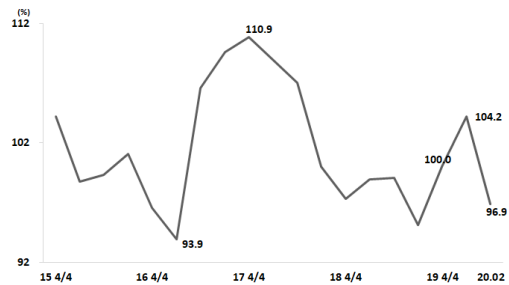
〈그림 9〉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
자료: 한국은행; 통계청

〈그림 10〉 소비자심리지수



■ 2019년 4/4분기 들어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기계수주와 건설수주가 증가하는 등 투자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남

○ 2019년 4/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4.8%p 상승한 1.1%를 기록하였고,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.2%p 상승한 -2.5%를 기록하였으며,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2.5%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함

- 건설투자 증가율은 비주거용 건축부문 및 일반토목부문 모두 증가하여⁶⁾ 상승함

○ 2019년 4/4분기 기계수주 및 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각각 21.4%p, 19.1%p 상승하여 15.3%, 21.7%를 기록함

- 기계수주 증가율은 12월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음향통신 등 민간부문과 공공운수업 등 공공부문이 모두 증가하면서 크게 증가함⁷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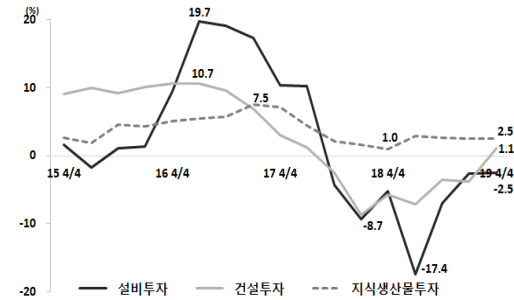
5) 국회예산정책처(2020. 2), 『NABO 경제·산업동향&이슈』

6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1), “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”

7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1), “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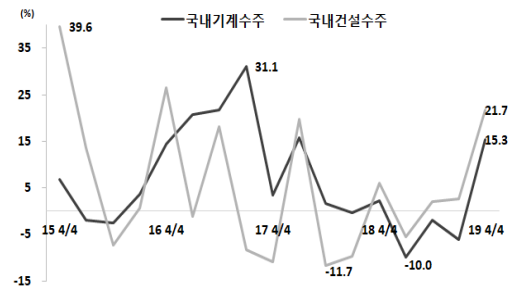
- 건설수주 증가율은 도로·교량 등 토목부문 및 주택 등 건축부문⁸⁾ 모두 크게 증가하여 상승함

〈그림 11〉 건설투자, 설비투자,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2〉 기계수주,¹⁾ 건설수주²⁾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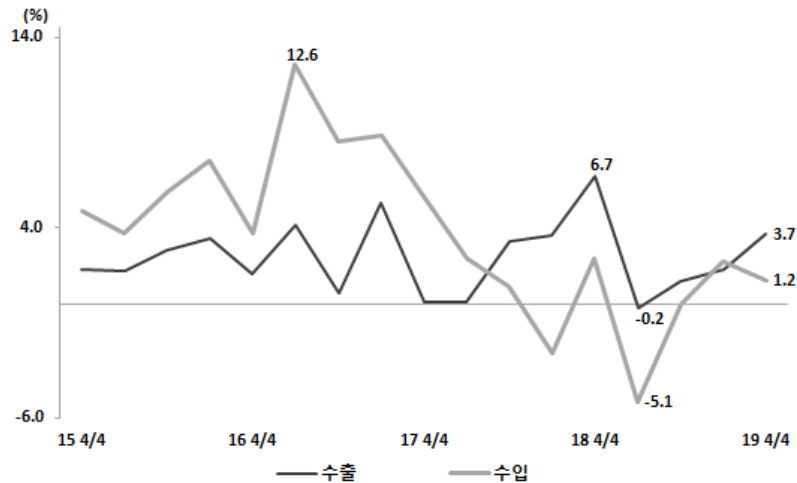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선박 제외함
2) 경상
자료: 통계청

■ 수출 증가율은 2019년 2/4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수입 증가율은 하락함

- 2019년 4/4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.9%p 상승하여 3.7%를 기록하였고, 수입 증가율은 1.1%p 하락하여 1.2%를 기록함

〈그림 13〉 수출입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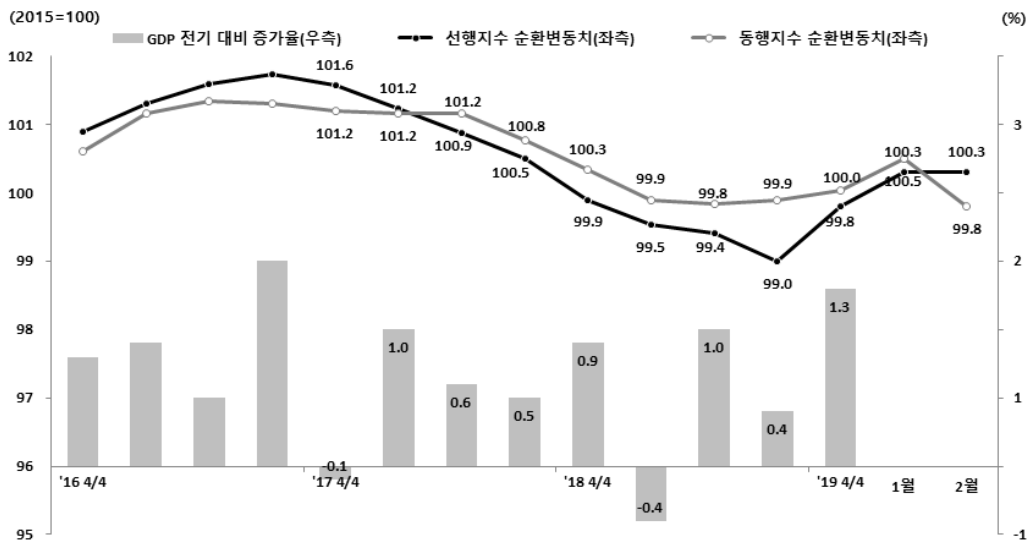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8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1), “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”

- 2019년 4/4분기 경제성장률과 선행지수⁹⁾ 순환변동치 및 동행지수¹⁰⁾ 순환변동치는 동반 상승하였으나,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크게 하락함
- 2019년 4/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장단기 금리차,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¹¹⁾ 전분기보다 0.8 상승한 99.8을 기록함
- 2019년 4/4분기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등이 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 및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¹²⁾ 전분기보다 0.1 상승한 100.0을 기록함
- 2020년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및 비농림 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, 소매판매액지수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의 감소로 전월 대비 0.5 하락한 99.8임

〈그림 14〉 GDP증가율과 순환변동치



주: 2019년 2/4분기,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
 자료: 한국은행, 「국민소득」; 통계청, 「산업활동동향」

9)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, 소비자기대지수, 건설수주액, 기계류내수출하지수, 수출입물가비율, 구인구직비율, 코스피지수,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

10)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, 서비스업생산지수, 건설기성액, 소매판매액지수, 내수출하지수, 수입액, 비농림 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

11) 통계청 보도자료(2019. 12), “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”;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1), “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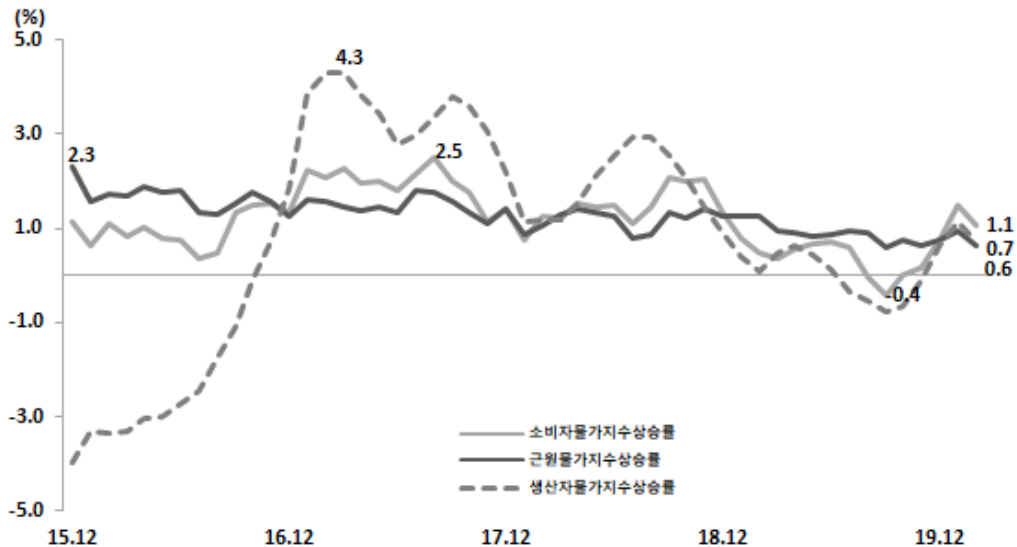
12) 통계청 보도자료(2020. 1), “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”

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9월 역대 최저치인 -0.4%를 기록하고 반등하였으나, 2020년 2월에 다시 하락함

○ 2020년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 부문이 둔화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.4%p 하락하여 1.1%를 기록함

- 특히 2020년 2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·외식 등이 감소하면서¹³⁾ 개인서비스 부문이 크게 감소함¹⁴⁾

〈그림 15〉 물가상승률



주: 1)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

2)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

자료: 한국은행

■ 주요 기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및 수출 등이 위축되어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9년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

○ 예산정책처는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경제활동 및 소비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2020년 경제성장률을 2019년에 비해 낮은 1.6%로 전망함

○ 주요 해외투자은행¹⁵⁾의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최저 0.3%에서 최고 1.5%로, 평균 0.9%로 전망함

13) 해외단체여행: -6.4%(‘20. 1) → -12.2%(‘20. 2), 외식: -1.8%(‘20. 1) → -2.1%(‘20. 2)

14) 기획재정부(2020. 3), 「최근경제동향」

15) 8개 IB(Barclays, BoA Citi, Credit Suisse, Goldman Sachs, J.P. Morgan, Nomura, UBS), 2020년 3월 말 기준임

2. 금융

가. 금리

■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3월 17일 기준금리를 1.25%에서 0.75%로 인하함¹⁶⁾

-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양상이 불확실하지만 1/4분기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, 2/4분기 이후 국내외 금융·경제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음¹⁷⁾
- 그러나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¹⁸⁾
-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9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이어 0.5%p 추가 인하하였으며,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%대에 진입함

■ 미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심화로 금리 인하와 대규모 경기 부양책 마련 등 양적 완화기조를 확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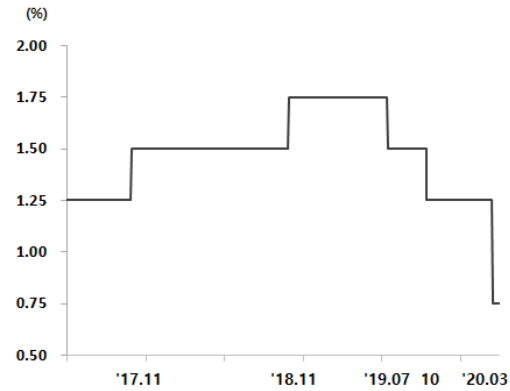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기준금리는 3월 4일 0.5%p, 15일 1.0%p 두 차례의 인하로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제로금리(0.00~0.25%) 수준에 진입하였으며, 정부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가계·기업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함
- 영국도 3월에 기준금리를 0.25%에서 0.1%로 두 차례(0.5%p, 0.15%p) 인하하였으며, 7,100억 파운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함
- 이 외에도 캐나다 0.25%(0.5%p), 호주 0.25%(0.25%p)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럽연합 국가들의 재정 확대 정책이 이어지고 있음

16) 한국은행 보도자료(2020. 3. 16), “기준금리 0.5%p 인하 등 경제·금융 안정화 조치 실시”

17) 한국은행(2020. 3. 17), 「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(2020년도 제4차)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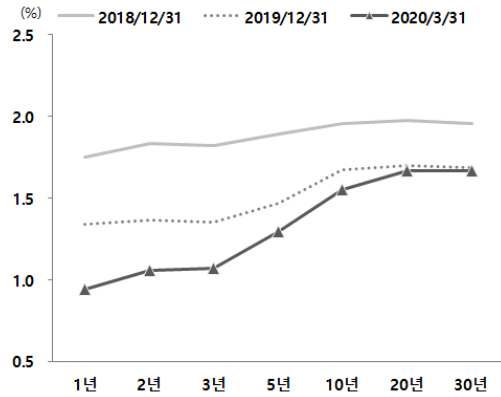
18) 한국은행(2020. 3. 31), 「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(2020년도 제6차)」

〈그림 16〉 기준금리



자료: Bloomberg

〈그림 17〉 국채 수익률 곡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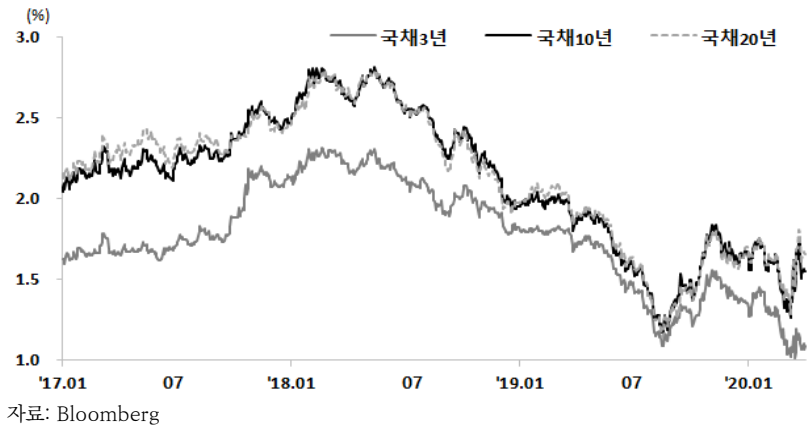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■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임

- 1월 국채금리는 미·중 무역협상 진전,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, 정부의 예산 확대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규모 증가로 장단기물 모두 소폭 상승함
- 그러나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되고 기준금리 인하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되어 국채금리는 하락세로 전환함
 -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2월 소비자 심리지수(104→74)와 기업경기 실사지수(75→65)는 메르스 사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함¹⁹⁾
- 3년물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1.3%대까지 하락함

19) 하나금융경영연구소(2020. 3. 21), 「금리: 금통위, 금리 인하보다는 미시 대응에 주력」, 『하나금융포커스』, 제10권 5호

〈그림 18〉 국채 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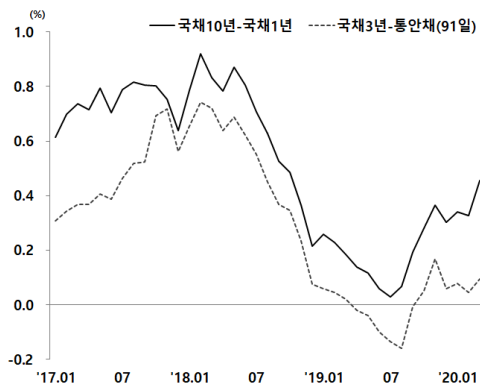
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,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채권 발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이 단기물에 비해 약세를 보이며, 장단기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됨

○ 장단기 스프레드(10년물-1년물)는 1월 초 26.5bp에서 3월 말 81.6bp로 3배 이상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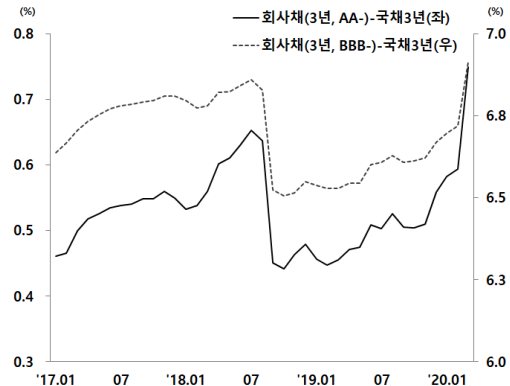
- 통상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는 경기 확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나 최근의 확대 현상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한 것에 기인함

○ 또한 신용평가사들의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며, 3월 신용스프레드(회사채 AA-국채 3년물)는 75bp까지 확대되어 201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

〈그림 19〉 장단기 스프레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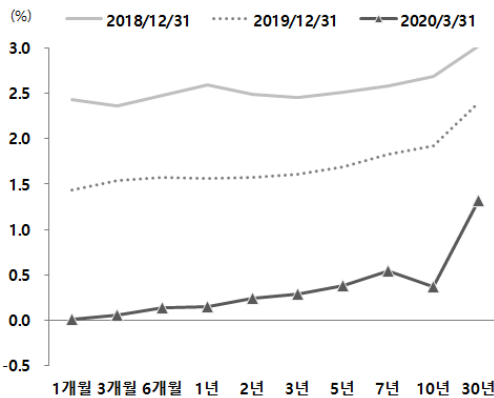
〈그림 20〉 신용스프레드



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, 미국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는 지난 경제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우리나라와의 금리차는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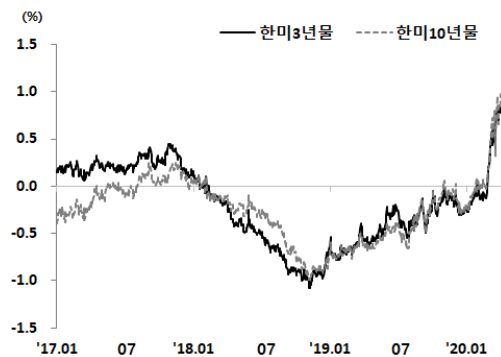
- 1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, 중동지역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등락을 반복함
-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가 중국 외 지역에서 급증함에 따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와 식품의약국(FDA) 경고에 따른 투자자 불안 심리가 확대되어 장기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하락함
- 3월 미국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(10년물-2년물)는 0.117%p까지 축소되었으며, 이는 동아시아 외환위기(0.247%p), 글로벌 금융위기(1.921%p)²⁰⁾때 보다 낮은 수준임

〈그림 21〉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



자료: Bloomberg

〈그림 22〉 한국과 미국 금리차(3년, 10년)



자료: Bloomberg

■ 해외 투자은행들은 '20년 2분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12월 전망치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함

- 2020년 2분기 미국 국채(10년) 금리는 0.73%, 국내 국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.39%, 1.16%로, 지난 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

20) 현대경제연구원(2020. 3. 20), 「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비교」

〈표 1〉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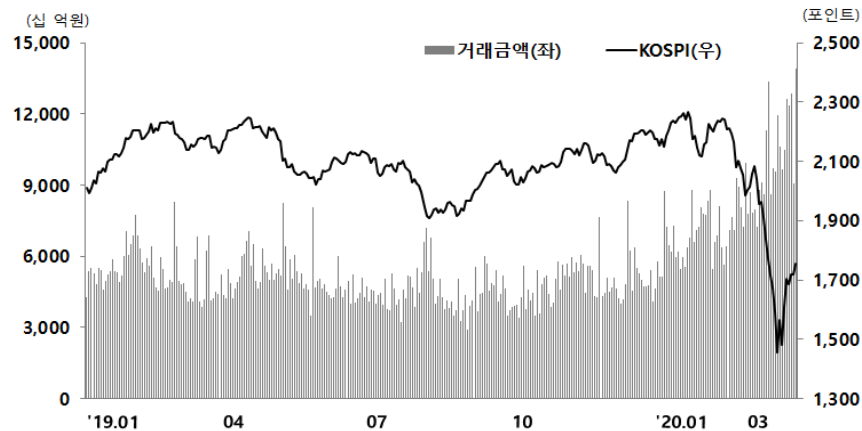
미국 국채(10년) 금리			국내 국채(10년) 금리			국내 국채(3년) 금리		
'20. 2Q	3Q	4Q	'20. 2Q	3Q	4Q	'20. 2Q	3Q	4Q
0.73	0.94	1.1	1.39	1.46	1.56	1.16	1.26	1.3

주: 2020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, 예측 시점은 3월 기준임
 자료: 한국은행; Bloomberg

나. 주가

- 코스피(KOSPI)는 1월 말까지 회복세를 이어가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1,400선까지 하락하여 2009년 이후 10년 만에 1,500선이 붕괴됨
- 3월 11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수준(6단계)인 팬데믹 선언으로 주요국의 주식시장 불안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침체로 이어짐
- 코스피는 팬데믹 선언 이후 다음날 전일 대비 23.5% 하락하였으며, 이후 1,439~1,897 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3월 말 1,700선에서 마감함

〈그림 23〉 주가지수 추이



자료: 한국거래소

다. 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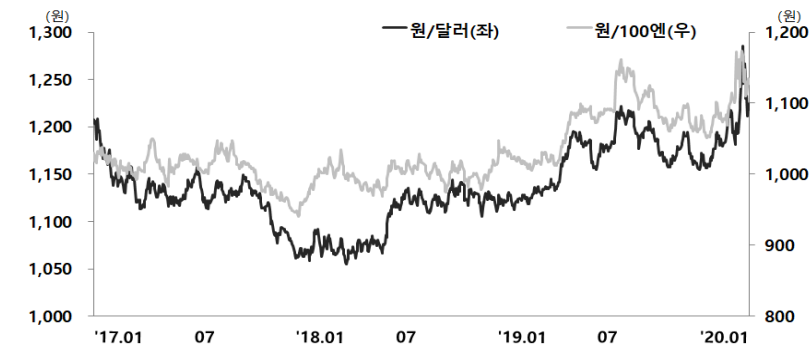
■ 원/달러 환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화 유동성 우려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,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안정을 되찾으며 1,2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함

- 1월 원/달러 환율은 미·중 무역합의 서명과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달러 강세를 보이며, 1,150원대로 하락함
- 그러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원/달러 환율은 급격히 상승세로 전환되어 1,285원까지 상승함
- 3월 11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·미 통화스왑 체결로 인해 원/달러 환율은 달러 유동성 우려가 진정되며 1,2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함
 - 한·미 통화스왑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규모, 6개월 기한으로 체결한데 이어 두 번째이며, 이번 계약 규모는 600억 달러,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임

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는 강세를 보였으나 지난 4/4분기 일본의 역성장,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등 약세 압력으로 인해 원/엔 환율은 100엔 당 1,100원대를 기록함

- 일본은 2019년 4/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-1.6%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,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서 엔화 약세 압력을 받음
- 1,2월 원/엔 환율은 100엔 당 1,050원을 하단으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3월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이어져 1,100원대로 상승함

〈그림 24〉 원/달러 및 원/엔 환율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■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'20년 2분기에 원/달러와 엔/달러 환율은 하락, 달러/유로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

○ 코로나19의 장기화 우려 및 경제 충격이 실물 지표로 가시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 연준의 강한 통화 완화정책이 달러화 약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

〈표 2〉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

(단위: 원, 엔,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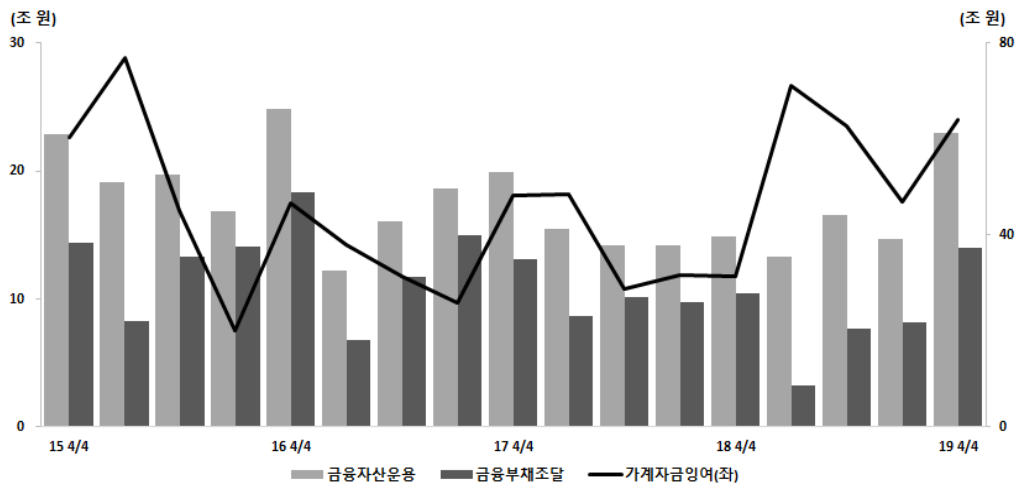
구분	원/달러		엔/달러		달러/유로	
	'20. 1Q	2Q	'20. 1Q	2Q	'20. 1Q	2Q
Standard Chartered	1,219	1,190	109	102	1.09	1.11
JP Morgan Chase		1,170		107		1.11
Barclays		1,190		108		1.09
BNP Paribas		1,185		108		1.12
Morgan Stanley		1,130		107		1.18

주: 2020년 2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, 예측 시점은 3월 말 기준임
 자료: 한국은행; Bloomberg

3. 자금흐름

- 2019년 4/4분기 가계부문²¹⁾의 자금잉여²²⁾는 반등하여 상반기 수준으로 회복함
- 2019년 4/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61.4조 원, 금융부채 조달은 37.4조 원으로 24.0조 원의 자금잉여가 발생함

〈그림 25〉 가계자금잉여



자료: 한국은행

- 2019년 가계부문의 채권과 국내주식 거래는 감소한 반면 현금 및 예금 거래는 확대됨
-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.7%로 최근 10년 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38.8%를 기록함

21) 가계(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)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

22)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,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

〈표 3〉 가계금융상품거래

(단위: 조 원, %)

구분	현금 및 예금	보험 및 연금		채권	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	비거주자 발행주식	투자펀드	기타	합계
2009	86.4	53.8	(37.1)	16.1	9.7	-2.2	-18.7	-0.1	145.0
2010	95.3	65.9	(44.7)	11.1	5.9	-0.2	-30.0	-0.6	147.4
2011	70.9	72.3	(45.6)	11.1	7.9	-0.3	-5.9	2.5	158.5
2012	36.9	99.0	(79.7)	10.5	-6.1	-0.4	-14.2	-1.5	124.2
2013	60.6	91.2	(60.5)	6.1	0.7	-0.3	-7.3	-0.2	150.7
2014	76.0	90.5	(53.2)	4.0	-0.8	0.8	-3.5	3.1	170.0
2015	107.9	89.8	(40.3)	4.7	5.3	1.7	9.5	4.1	223.0
2016	118.3	87.7	(41.0)	-0.9	9.9	0.1	-2.6	1.2	213.7
2017	101.2	83.3	(47.7)	-11.8	0.0	1.1	-3.9	4.7	174.6
2018	74.3	61.4	(40.3)	0.1	17.0	1.8	0.0	-2.1	152.4
2019	129.0	69.8	(38.8)	-17.3	-7.8	2.1	2.0	2.3	180.1
1/4	38.4	13.9	(39.3)	-8.8	-4.9	0.3	1.8	-5.3	35.4
2/4	25.7	14.0	(31.7)	-1.7	-1.2	0.6	4.6	2.1	44.1
3/4	28.1	10.1	(25.7)	0.7	0.5	0.6	-1.2	0.4	39.3
4/4	36.8	31.8	(51.8)	-7.5	-2.1	0.5	-3.3	5.2	61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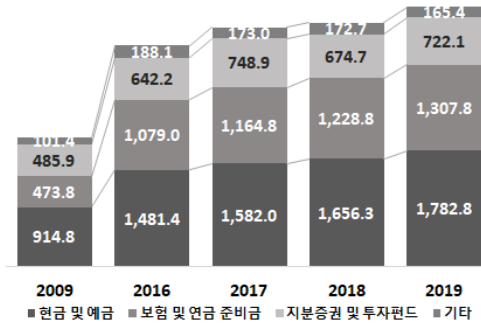
주: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

■ 2019년 4/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.9%로 2018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함

○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2017년부터 상승하여 2019년 44.8%를 기록함

〈그림 26〉 가계금융자산 구성(금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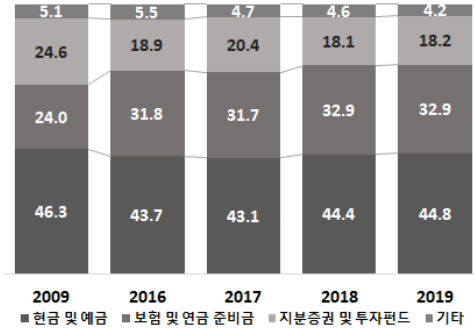
(조원)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27〉 가계금융자산 구성(비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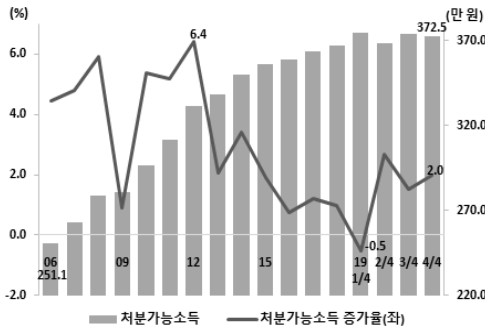
(%)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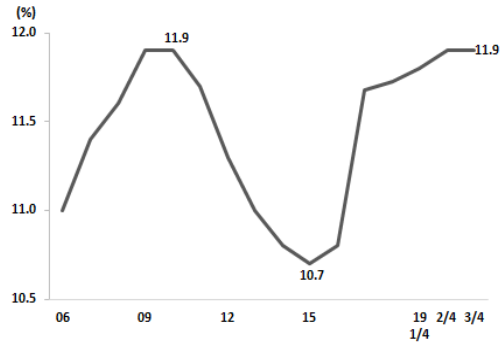
-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9년 1/4분기 -0.5%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, 반등하여 4/4분기 2.0%를 기록함
-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은 2019년 3/4분기 11.9%를 기록하며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함

〈그림 28〉 명목 처분가능소득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
자료: 통계청

〈그림 29〉 DSR



자료: BIS

4. 규제·제도

■ 소비자 중심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(2020. 3. 25 금융위원회)

- 일반인 대상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특별약관도 포함하고, 일반인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쉽고 명확하게 개선함

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「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」 마련(2020. 3. 19 금융위원회)

-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손명수 차관은 3월 19일 「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」를 개최하여 불합리한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,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,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함

■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(2020. 2. 6 금융감독원)

-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·컨설팅·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하고,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

■ 공동재보험(Coinsurance) 도입방안 논의(2020. 1. 30 금융위원회)

-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월 30일 「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」을 개최하고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으로서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함

■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(GA)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(2020. 1. 22 금융감독원)

- 금융감독원은 불건전영업 근절을 위한 법인보험대리점(GA)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, 그 결과 대형 GA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위규가 반복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제재하고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

■ 「보험업감독규정」 개정(2020. 1. 15 금융위원회)

- 보험상품의 해약공제액 및 사업비 관련 불합리한 부분 및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을 개선시키고,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함

■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(2020. 1. 13 금융위원회)

- 「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」으로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1월 기준, 약 2조 8천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 안내하였고 2019년 11월 말 현재 약 10조 7천억 원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으며, 이는 「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」으로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

II. 보험 동향

- 보험산업의 자산성장률은 2015년 이후 둔화되었으나, 2019년에는 상승세를 나타냄
 -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7.1% 증가하였으며,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7.6% 증가함
 - 2019년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은 퇴직연금 확대와 금리 하락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
-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사업비)은 2016년과 2017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냄
 -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5.8% 증가한 117.3조 원을 기록함
 - 보험금 지급 증가와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실적 둔화가 보험영업현금흐름 감소의 주요인임
-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원수보험료 - 발생손해액 - 사업비)은 2018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, 2019년에는 감소세가 심화됨
 -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.0% 증가한 95.6조 원을 기록함
 - 그러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도 각각 전년 대비 6.7%, 9.3% 증가함에 따라 손해보험 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 악화가 가속화됨
- 2019년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손실 확대와 투자영업이익 감소로 전년 대비 22.7% 감소하였으며, 손해보험 당기순이익도 손해율과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31.7% 감소함
 - 생명보험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증가로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됨
 -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2018년 103.0%에서 2019년 105.7%로 상승함
- 생명보험은 2019년 외국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, 중소형사의 시장 점유율은 축소됨
 - 손해보험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확대되고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축소됨

1. 성장성

〈보험회사의 성장성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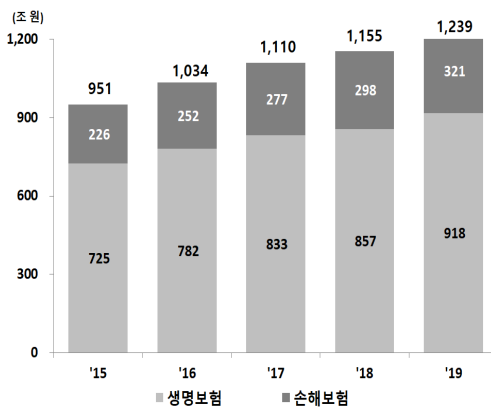
-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함
 - 보험산업은 통상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측정함
 -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, 자산운용(투자영업)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
 - 보험산업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보여주는 지표는 자산성장률로 판단됨
-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,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

가. 자산

■ 2019년 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1,239조 원으로, 전년 대비 7.2%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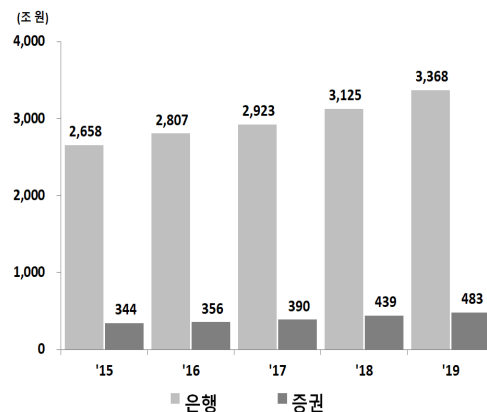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 총자산은 918조 원이며, 손해보험 총자산은 321조 원임
- 은행과 증권 산업의 총자산은 각각 3,368조 원과 483조 원임

〈그림 1〉 보험산업 자산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〉 은행 및 증권 자산


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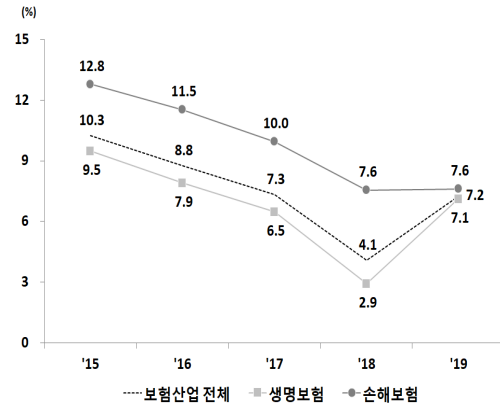
■ 보험산업의 자산성장률은 2015년 이후 둔화되었으나, 2019년에는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

○ 2019년 말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7.1% 증가하였으며,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7.6% 증가함

- 퇴직연금의 확대,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에 의한 책임준비금 증가, 기타부채 증가,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확대가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에 기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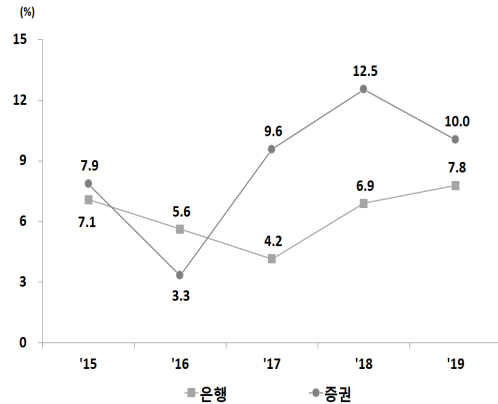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 은행의 자산성장률은 7.8%로 전년보다 0.9%p 상승하였으며, 증권 자산성장률은 10.0%로 전년보다 2.5%p 하락함

〈그림 3〉 보험산업 자산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〉 은행 및 증권 자산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금융감독원

■ 생명보험의 경우 2019년 대형사와 외국사의 자산성장률 상승세가,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사의 자산성장률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¹⁾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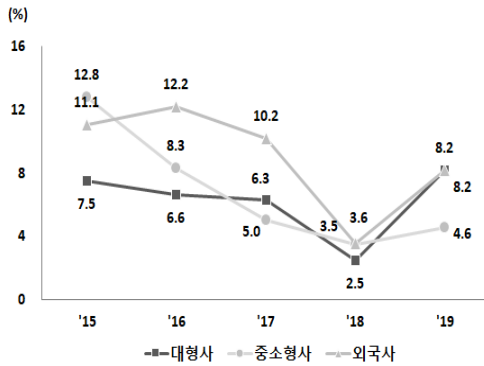
○ 생명보험의 경우 2019년 대형사와 외국사의 자산은 모두 전년 대비 8.2% 증가하였으나 중소형사의 자산은 전년 대비 4.6% 증가에 그침

○ 손해보험의 경우 2019년 외국사의 자산성장률이 14.7%로 가장 높았으며, 중소형사가 9.1%, 대형사가 6.7%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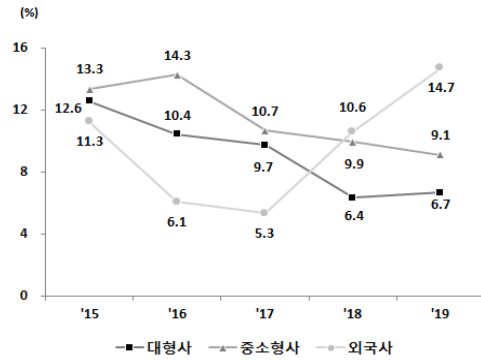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산업은 총 24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회사, 중소형사 12개 회사와 외국사 9개 회사를 포함함(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)

2) 손해보험산업은 총 31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회사, 중소형사 10개 회사와 외국사 17개 회사를 포함함(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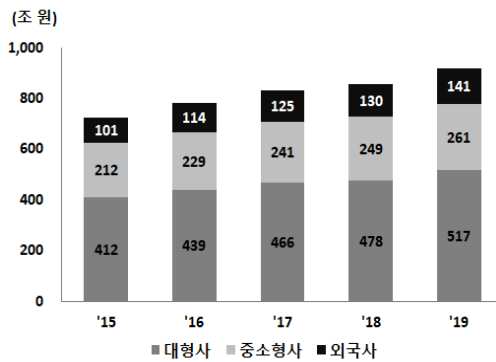
〈그림 5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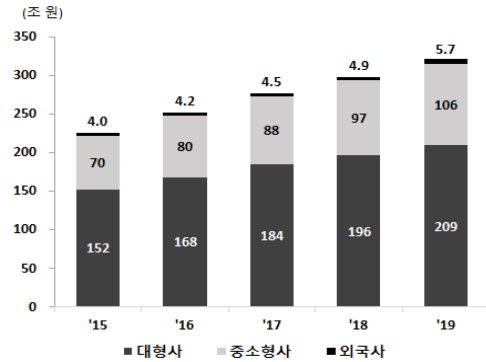
〈그림 6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



〈그림 7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



〈그림 8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



주: 1)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이며, 중소형사는 12개사, 외국사는 9개사임

2)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이며, 중소형사는 10개사, 외국사는 17개사임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. 생명보험 성장 요인

■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에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, 기타부채 증가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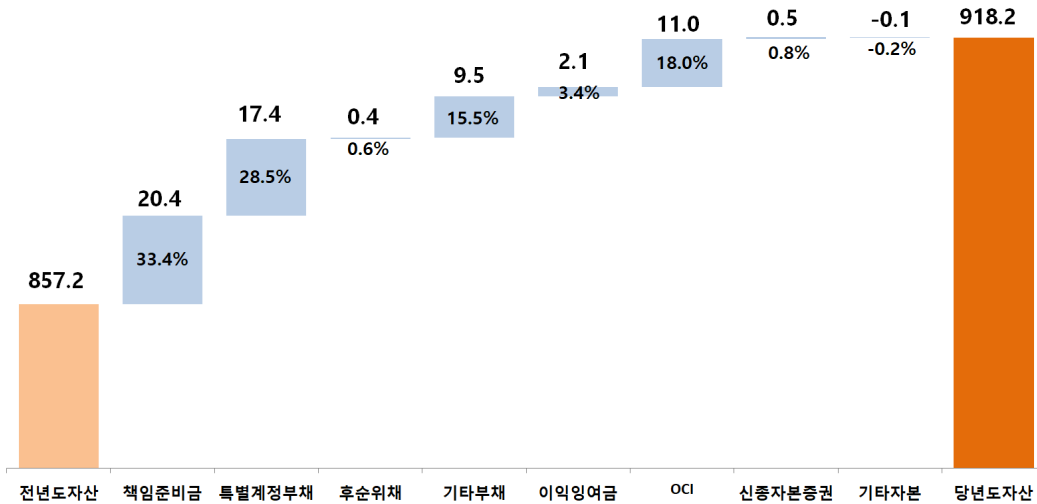
○ 책임준비금은 수입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33.4% 자산 성장에 기여하였으며, 특별계정부채는 28.5% 자산 성장에 기여함

○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리 하락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 성장에 18.0% 기여함

○ 기타부채는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 등이 증가하여 자산 성장에 15.5% 기여함

〈그림 9〉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

(단위: 조 원)



주: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〉

- 수입보험료(원수보험료)와 부리이자(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)는 책임준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, 보험금(발생손해액), 사업비 및 '수입보험료 속에 포함된 위험률차익과 사업비차익'은 책임준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임
 -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"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사업비) + 적립이자 - (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) + 기타(LAT 추가적립 등)"로 나타낼 수 있음
 -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'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'이 드러나지 않음
-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
 - 손익계산서로부터 '영업이익 = 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- 책임준비금전입액' 이므로
 - '책임준비금전입액 = 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- 영업이익'인데,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
 - 따라서, 책임준비금 증감

$$= \text{책임준비금전입액} + \text{기타}$$

$$= [\text{보험영업이익} + \text{투자영업이익} - \text{영업이익}] + \text{기타}$$

$$= [(\text{수입보험료} - \text{보험금} - \text{사업비}) + (\text{재보험수익} - \text{재보험비용}) + \text{투자영업이익} - \text{영업이익}] + \text{기타}$$
 ○ 공시된 회계상의 '투자영업이익 - 영업이익'은 대략 '적립이자 - (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)'으로 이해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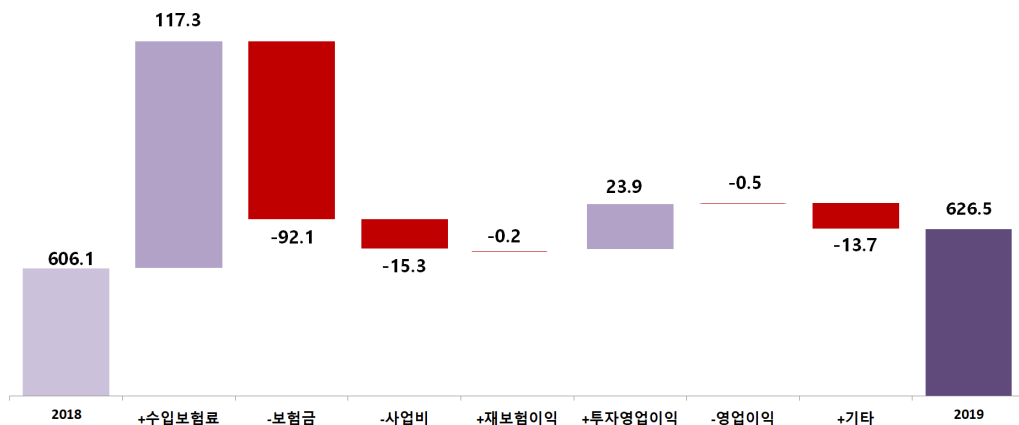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 책임준비금

■ 2019년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전년 대비 20.4조 원 증가하였는데, 수입보험료가 보험금과 사업비³⁾ 지출액을 소폭 초과하여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하였고, 투자영업이익도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함

○ 2019년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은 23.9조 원 흑자를 기록하여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함

〈그림 10〉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

(단위: 조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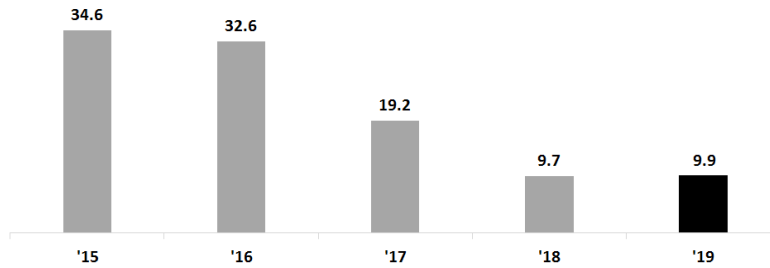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) 여기서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전 전 사업비임

- 보험영업현금흐름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사업비)은 2019년 9.9조 원으로 전년 대비 0.2조 원 증가하였으나, 2016년과 2017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

〈그림 11〉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

(단위: 조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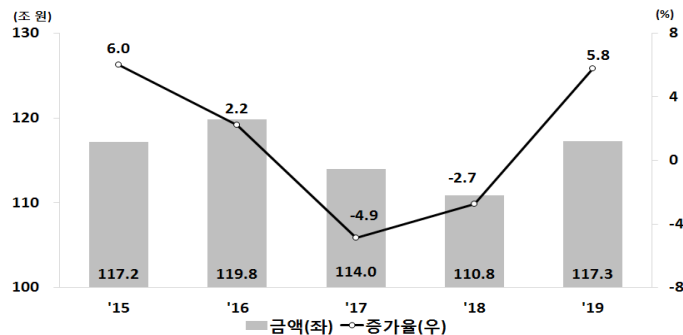


주: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이연전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가) 생명보험 수입보험료

-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5.8% 증가한 117.3조 원을 기록함
- 보장성보험은 중·저가형 건강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은 계속되고 있음
 - 퇴직연금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입보험료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, 변동 폭이 큰 퇴직 연금을 제외하면 수입보험료 역성장 추세가 지속됨

〈그림 12〉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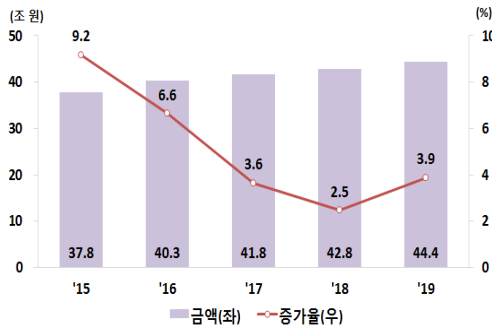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종목별로 보면,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반면, 저축성보험은 역성장을 지속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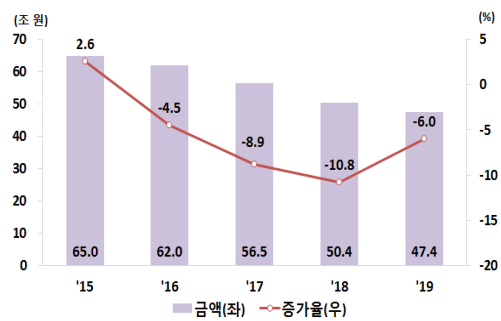
- 보장성보험은 치매보험, 유병력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등의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3.9% 증가한 44.4조 원을 기록함
- 저축성보험은 저금리로 인한 판매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6.0% 감소한 47.4조 원을 나타냄
- 퇴직연금은 일부 회사의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46.1% 증가한 24.6조 원을 나타냄
- 일반단체보험은 전년 대비 0.6% 증가한 0.8조 원을 기록함

〈그림 13〉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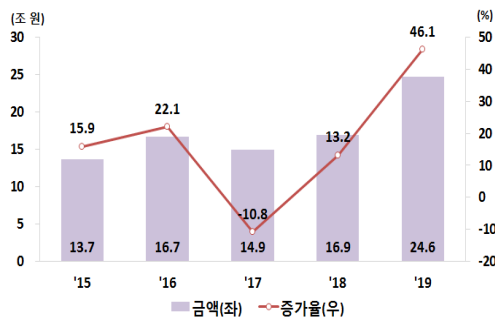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4〉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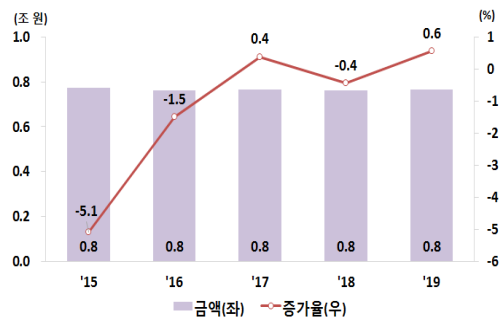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5〉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6〉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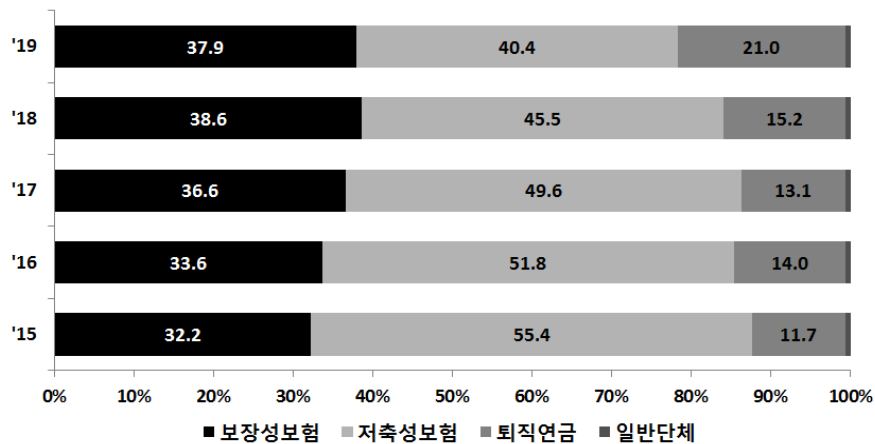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저축성보험 감소세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

-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2015년 55.4%에서 2019년 40.4%로 축소됨
- 반면, 같은 기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32.2%에서 37.9%로 확대되었으며, 퇴직연금의 수입보험료 비중도 11.7%에서 21.0%로 확대됨

〈그림 17〉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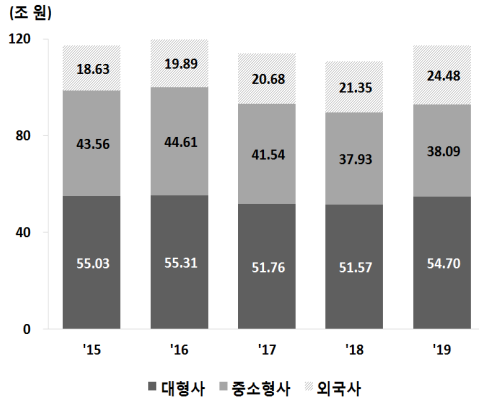


주: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회사 유형별로 보면, 2019년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, 중소기업사 수입보험료는 저성장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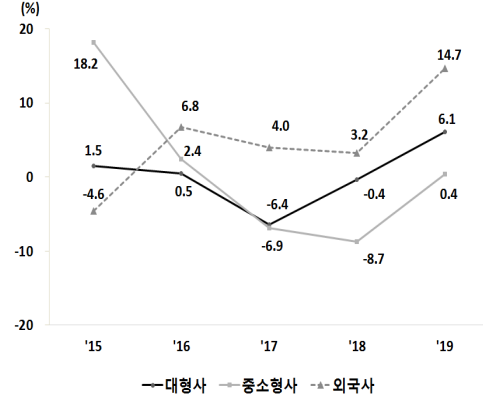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외국사의 수입보험료는 일부 회사의 퇴직연금 및 중·저가형 건강보험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14.7% 증가함
- 2019년 대형사 수입보험료도 퇴직연금 확대에 힘입어 6.1% 증가함
- 그러나 중소기업사 수입보험료는 저금리로 인한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위축으로 0.4% 증가에 그침

〈그림 18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9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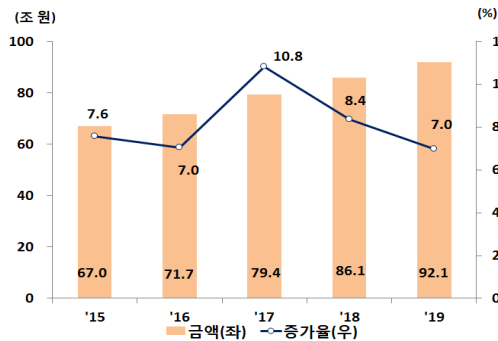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)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

■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과 사업비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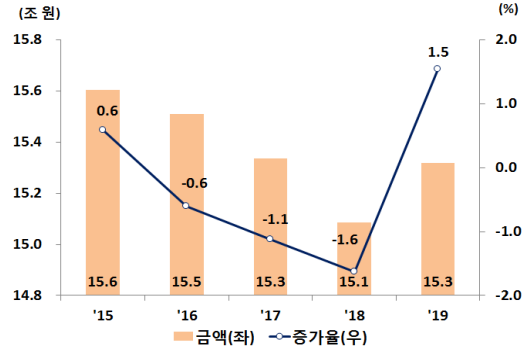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저축성보험 만기 지급이 늘어나 2019년 전년 대비 7.0% 증가한 92.1조 원을 기록함
- 생명보험의 사업비는 2015년 이후 신규 판매 위축으로 감소하였으나, 2019년에는 기저 효과와 소폭의 신규 판매 회복세로 전년 대비 1.5% 증가한 15.3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20〉 보험금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1〉 사업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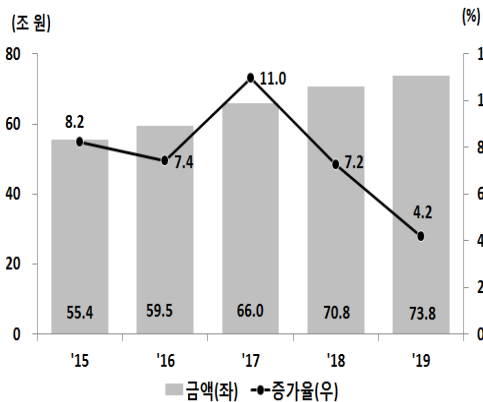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2019년 생명보험 보험금 중 환급금과 만기 및 퇴직 보험금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, 사망 및 상해 보험금과 배당금은 전년 대비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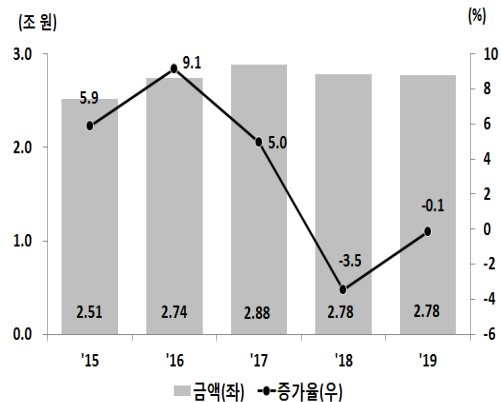
○ 저축성보험 만기 보험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고 있어, 저축성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 감소가 확대됨

〈그림 22〉 환급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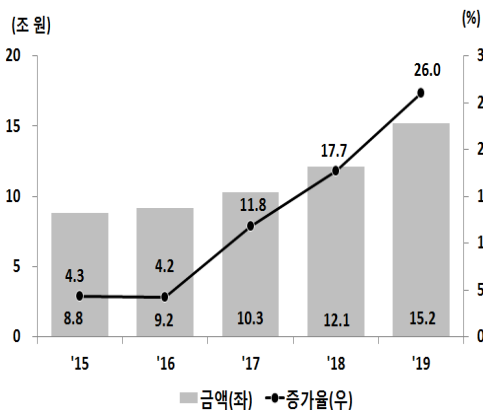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3〉 사망 및 상해 보험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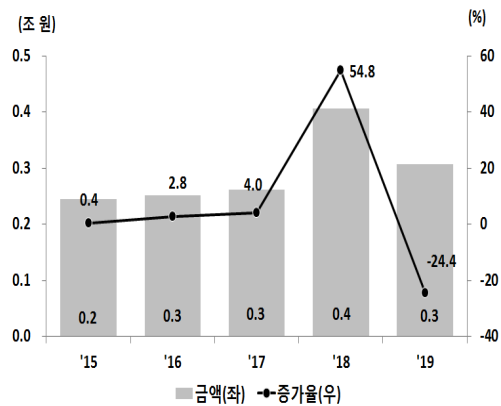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4〉 만기 및 퇴직 보험금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5〉 배당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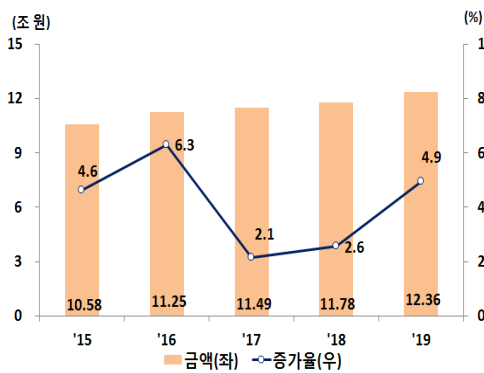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생명보험산업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,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신규 판매 둔화로 감소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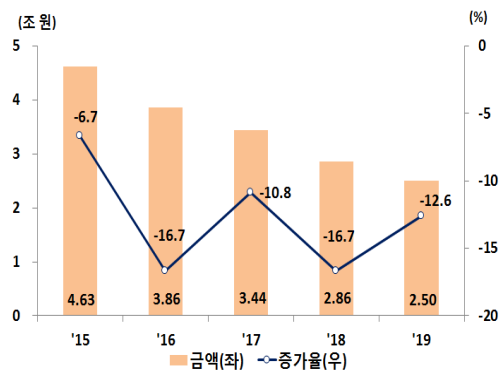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소폭의 신규 판매 회복세로 인하여 전년 대비 4.9% 증가함
- 반면, 2019년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전년 대비 12.6% 감소한 2.5조 원을 기록함

〈그림 26〉 보장성보험 사업비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7〉 저축성보험 사업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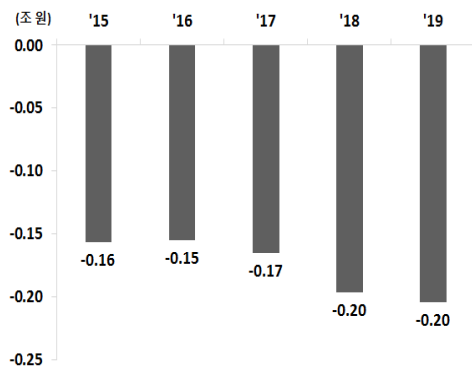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) 재보험 이익

■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재보험 이익은 0.2조 원 적자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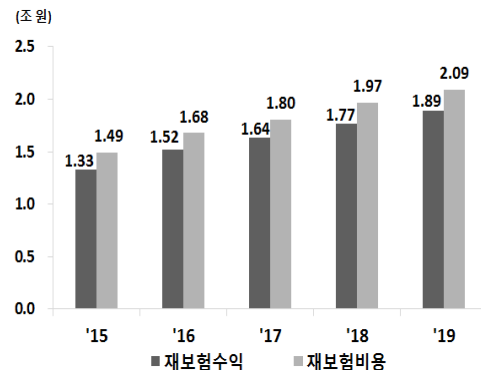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재보험수익과 재보험비용은 각각 1.89조 원과 2.09조 원임

〈그림 28〉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9〉 생명보험 재보험수익 및 비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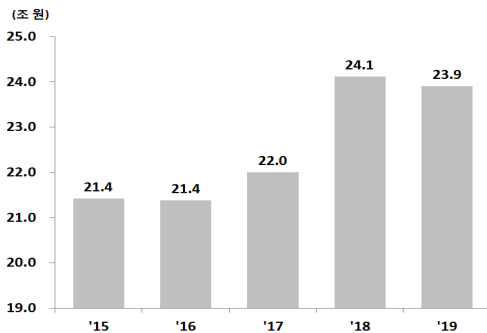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라)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

■ 2019년 생명보험의 투자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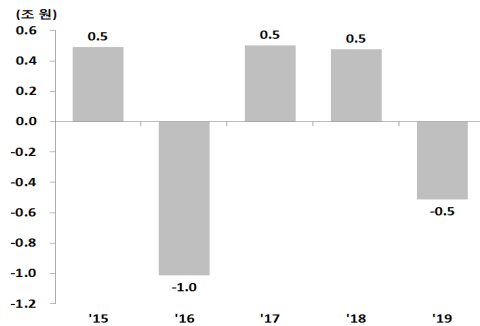
- 2019년 투자영업이익은 23.9조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2018년 주식처분이익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0.2조 원 감소함
- 2019년 영업이익은 금리 하락으로 보증준비금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.0조 원 감소한 0.5조 원 적자를 기록함

〈그림 30〉 투자영업이익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1〉 영업이익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

■ 생명보험산업의 후순위채 규모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, 2019년에도 전년 대비 0.3조 원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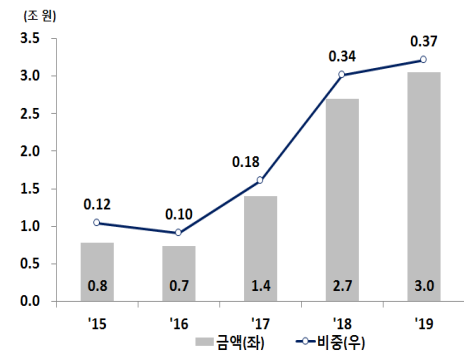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 후순위채 규모는 2016년 0.7조 원에서 2019년 3.0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,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.1%에서 0.37%로 확대됨
- 자본 확충을 위하여 RBC비율이 낮은 생명보험회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■ 생명보험 기타부채⁴⁾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, 2019년에는 확대되고 있음

4)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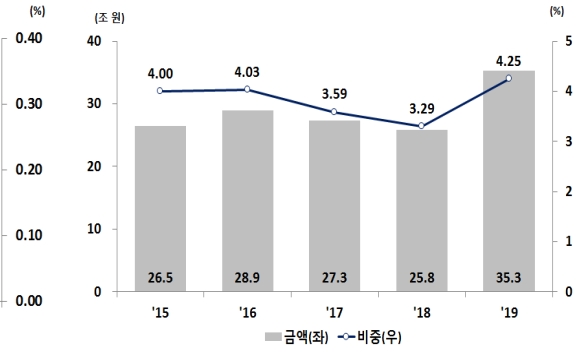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 기타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 확대로 2018년 3.29%에서 2019년 4.25%로 증가함

〈그림 32〉 후순위채


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3〉 기타부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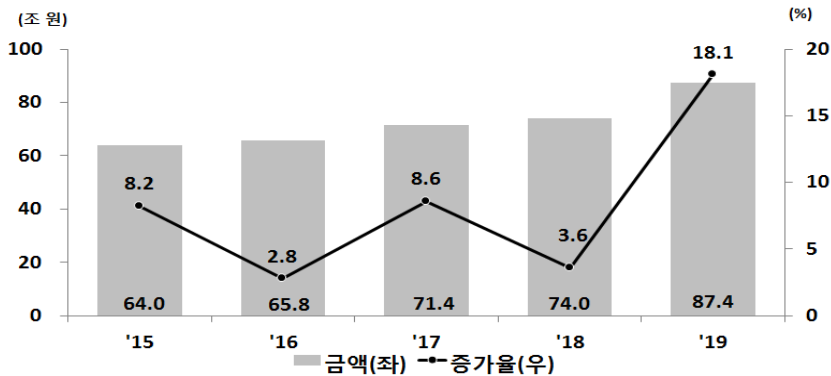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) 생명보험 자본

- 2019년 생명보험산업 총자본은 금리 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증가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전년 대비 18.1% 증가한 87.4조 원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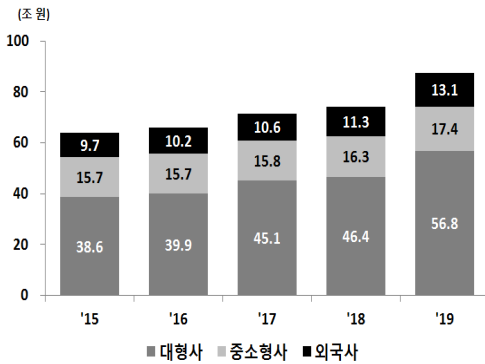
- 대형사 총자본이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22.5% 증가하였으며, 중소형사와 외국사 총자본도 각각 전년 대비 15.8%, 7.0% 증가함

〈그림 34〉 생명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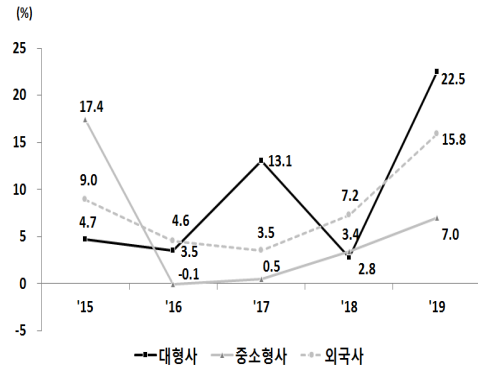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5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6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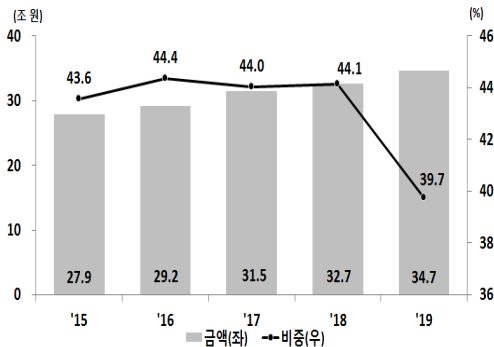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019년 생명보험의 이익잉여금과 기타자본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축소된 반면,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확대됨

-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2018년 22.5조 원에서 2019년 33.5조 원으로 확대됨
- 2019년 신종자본증권은 전년 대비 0.5조 원 증가한 3.5조 원을 나타냈으며, 총자산에서 4.0%를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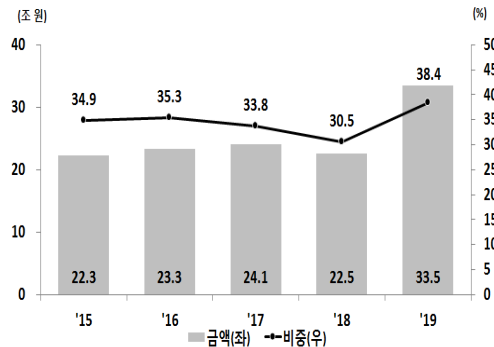
- 특히, 한화생명에는 2019년 7월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(K-ICS) 시행에 대비한 자본 확충을 위해 5,000억 원 규모(발행금리: 3.69%)의 신종자본증권(영구채)을 발행한 바 있음

〈그림 37〉 이익잉여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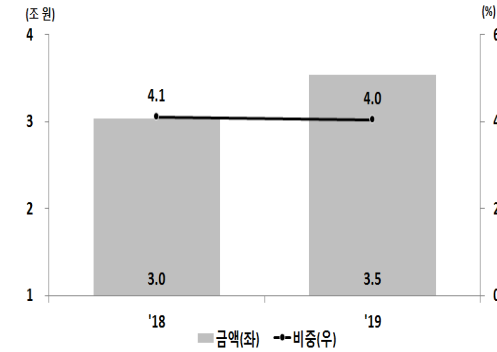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8〉 기타포괄손익누계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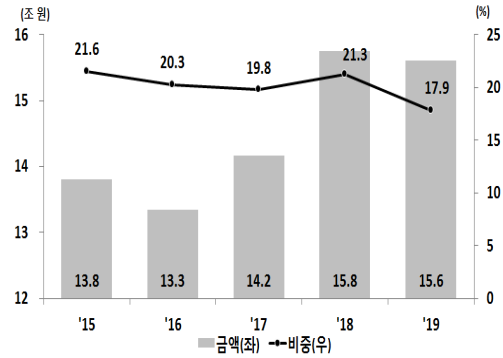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9〉 신종자본증권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0〉 기타자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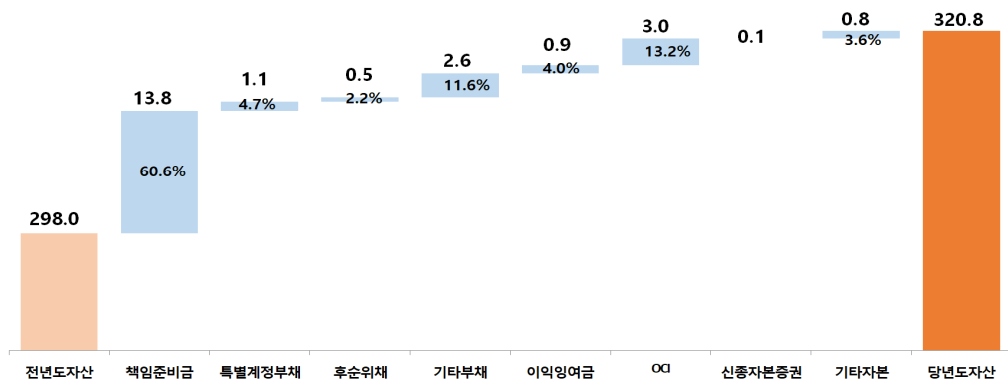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. 손해보험 성장 요인

- 손해보험산업의 2019년 말 총자산은 2018년 말 대비 22조 7,107억 원 증가하였는데, 책임준비금,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, 기타부채 순으로 성장에 기여함
-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 증가에 책임준비금 증감은 60.6%로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과 기타부채가 각각 13.2%와 11.6% 기여함

〈그림 41〉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

(단위: 조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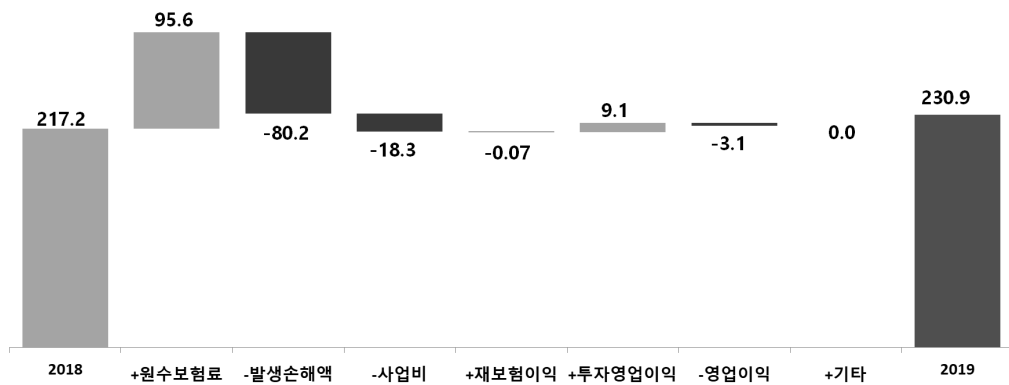
주: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1) 손해보험 책임준비금

- 2019년 말 책임준비금은 전년 대비 13조 7,578억 원 증가하였는데, 발생손해액과 사업비⁵⁾ 지출이 원수보험료를 2조 9,383억 원 초과하여 책임준비금 증가를 억제시킴
- 다만, 투자영업이익 증가가 책임준비금 증가에 9조 1,294억 원 기여함

〈그림 42〉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

(단위: 조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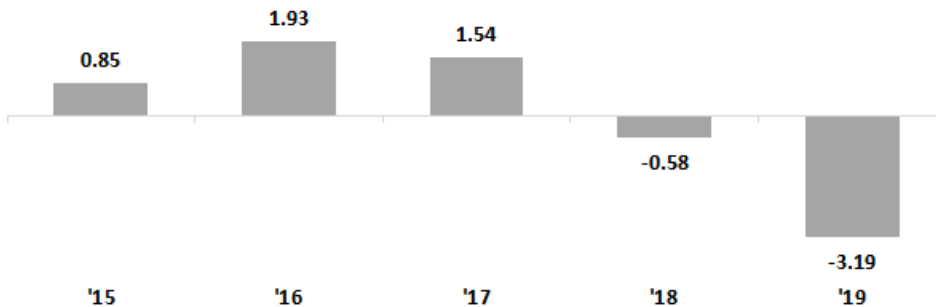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-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원수보험료 - 발생손해액 - 사업비)은 2018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, 2019년에는 마이너스 상태가 심화됨

〈그림 43〉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

(단위: 조 원)



주: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이연전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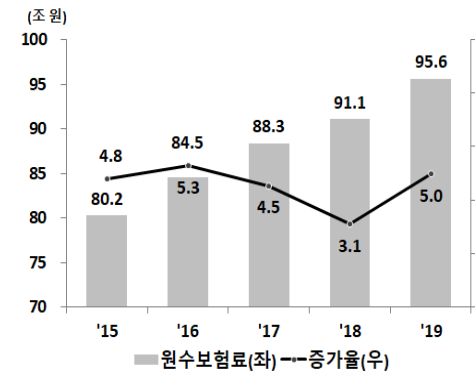
5) 여기서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전 사업비임

가) 손해보험 원수보험료

■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, 자동차보험, 퇴직연금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5.0% 증가한 95.6조 원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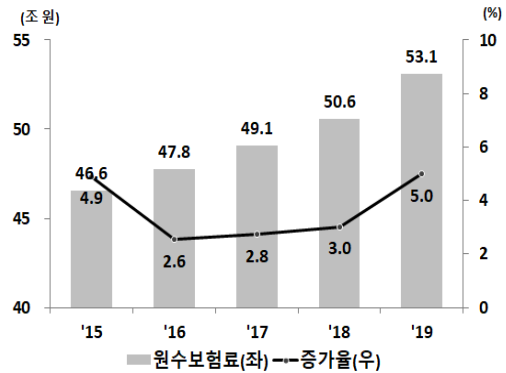
-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의 판매 경쟁 확대로 전년 대비 5.0% 증가한 53.1조 원을 기록함
-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5.1% 증가한 17.6조 원을 나타냄
-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과 보증보험 실적 부진으로 전년 대비 3.9% 증가에 그친 9.9조 원을 기록함
-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6.4% 줄어든 3.3조 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,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9.3% 증가한 11.8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44〉 원수보험료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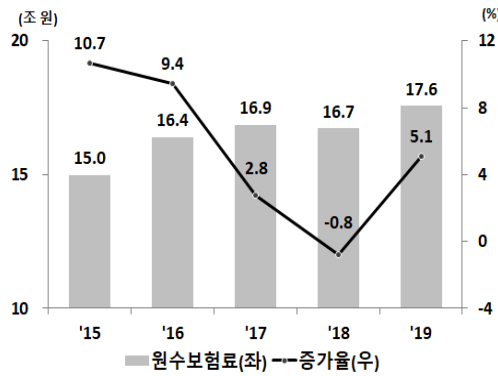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5〉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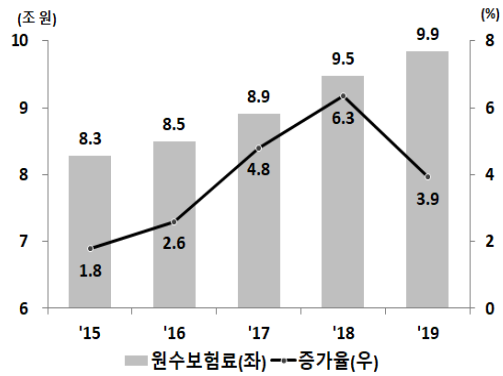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6〉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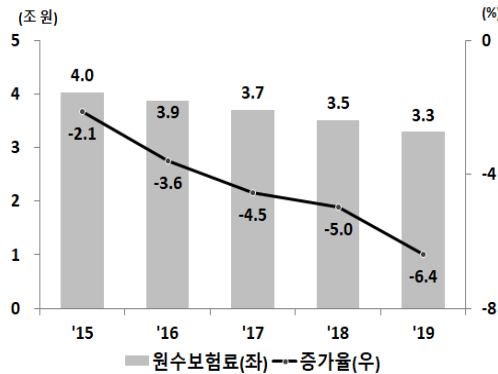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7〉 일반손해 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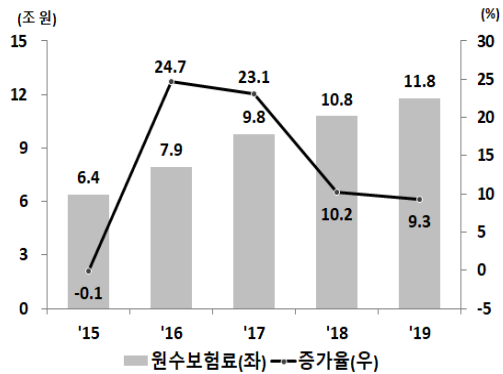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8〉 개인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9〉 퇴직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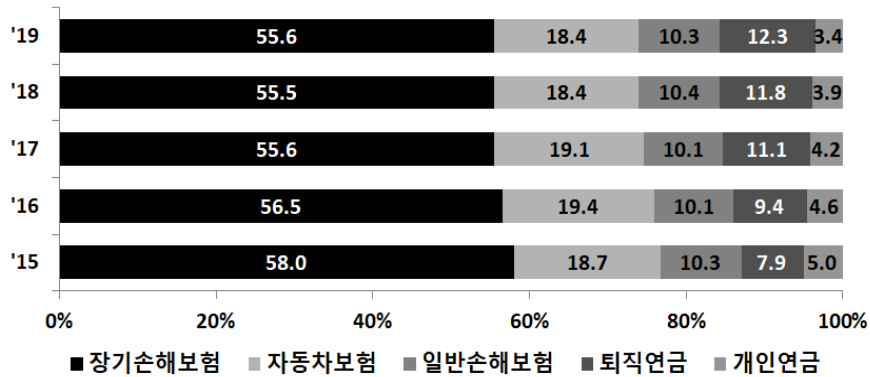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손해보험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비중이 확대되고 개인연금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

-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2015년 7.9%에서 2019년 12.3%까지 확대된 반면, 개인 연금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같은 기간 5.0%에서 3.4%로 축소됨
- 2019년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55.6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자동차 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각각 18.4%, 10.3%를 나타냄

〈그림 50〉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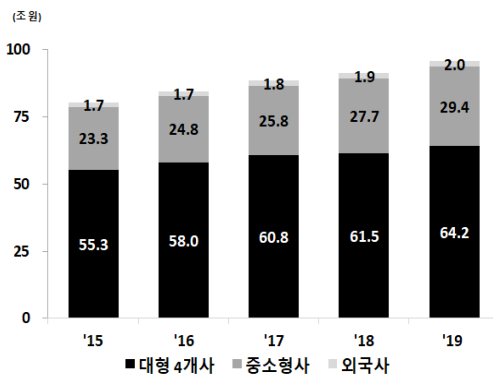


주: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회사 유형별로 보면, 2019년 대형사와 외국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반면, 중소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전년보다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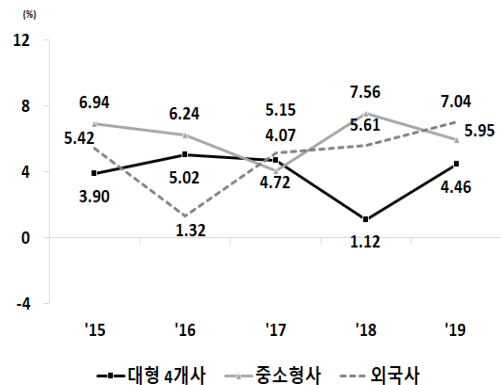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 대형사, 중소형사, 외국사의 전년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4.46%, 5.95%, 7.04%임

〈그림 51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2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)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

■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각각 전년 대비 6.7%, 9.3%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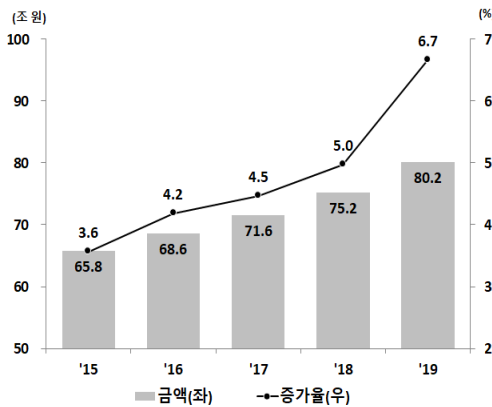
○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이 정비요금 인상과 취업가능연한 상향 등으로 증가하고, 장기손해 보험과 일반손해보험도 보험사고 증가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확대됨

-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국내외 대형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이 확대됨

○ 손해보험 전체 사업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사업비가 판매경쟁 심화로 크게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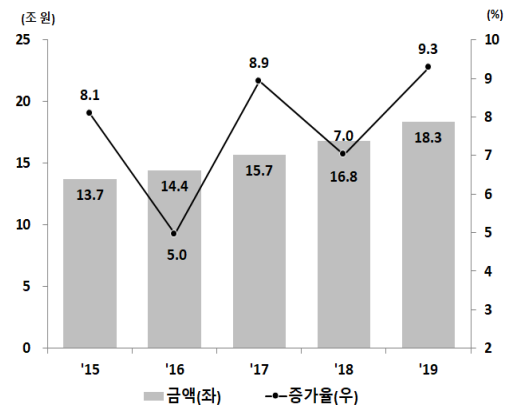
- 단,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사업비는 신규 판매 위축으로 감소하였으며, 자동차 보험 사업비도 인터넷, 모바일 이용 확산으로 감소세를 보임

〈그림 53〉 발생손해액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4〉 사업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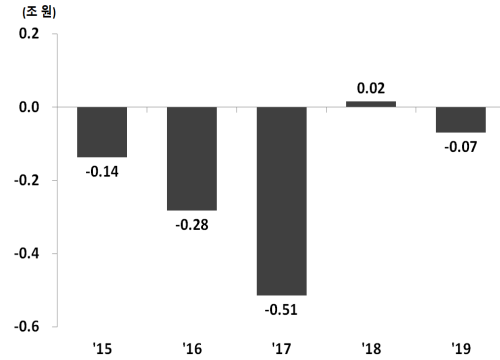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) 재보험 이익

■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재보험 이익은 0.07조 원 적자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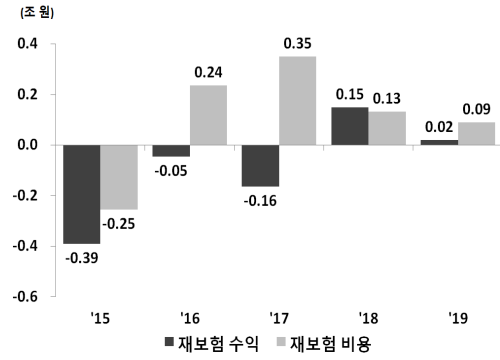
○ 이는 재보험비용은 전년에 비하여 줄어들었으나 재보험수익이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였기 때문임

〈그림 55〉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6〉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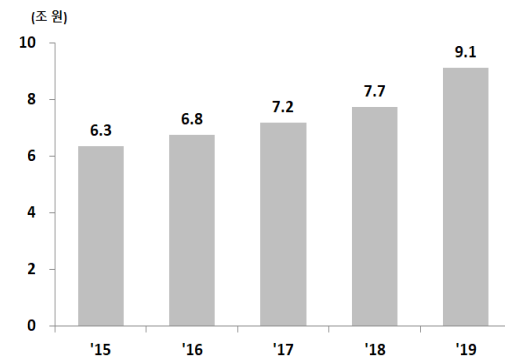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라)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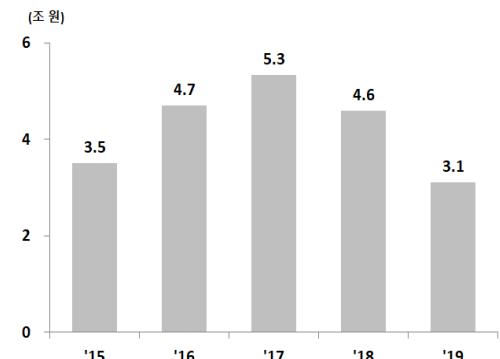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처분 이익과 이자 및 배당 수익 증가로 전년 대비 1.4조 원 증가하였으나, 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장기손해보험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1.5조 원 감소함

〈그림 57〉 투자영업이익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8〉 영업이익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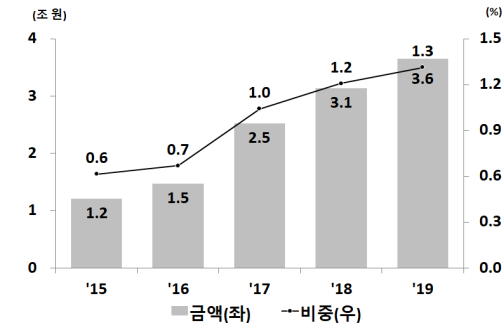
2)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

- 2019년 말 기준 손해보험산업 총부채 가운데 후순위채와 기타부채⁶⁾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확대됨

6)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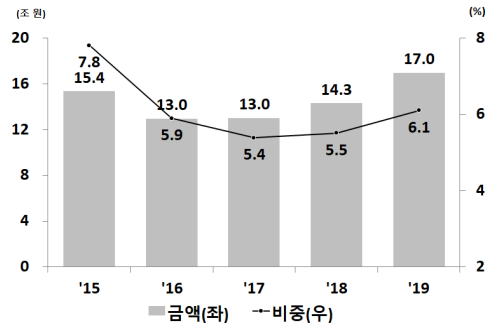
- 2019년 말 후순위채 규모는 전년 대비 0.5조 원 증가한 3.6조 원을,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말에 비하여 0.1%p 확대된 1.3%를 기록함
- 2019년 기타부채는 전년 대비 2.7조 원 증가한 17.0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.1%로 전년 말 대비 0.6%p 확대됨

〈그림 59〉 후순위채


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0〉 기타부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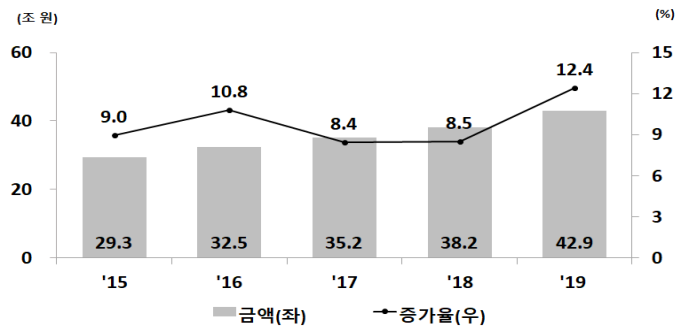


주: 1) 기타부채는 부채에서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후순위채를 제외한 값임
 2)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) 손해보험 자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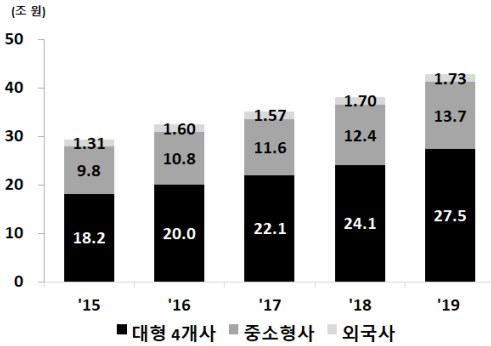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총자본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2.4% 증가한 42.9조 원을 기록함
- 대형사와 중소형사 총자본은 각각 전년 대비 13.9%, 10.9% 증가한 반면, 외국사 총자본은 전년 대비 2.1% 증가에 그침

〈그림 61〉 손해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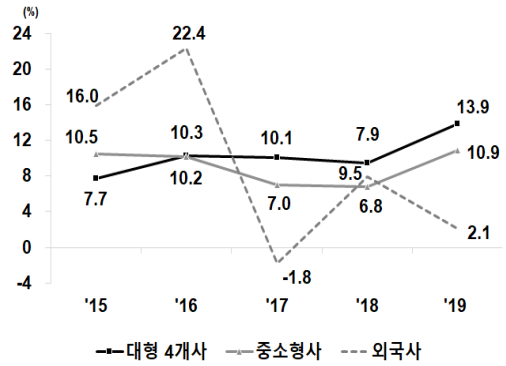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2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3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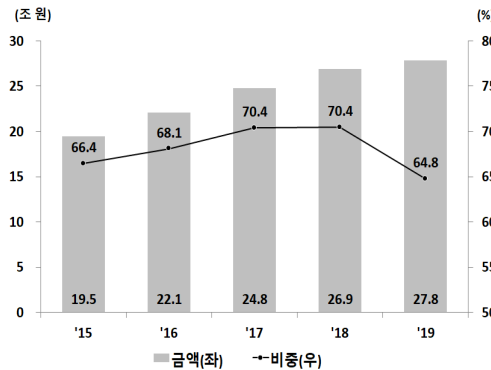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, 이는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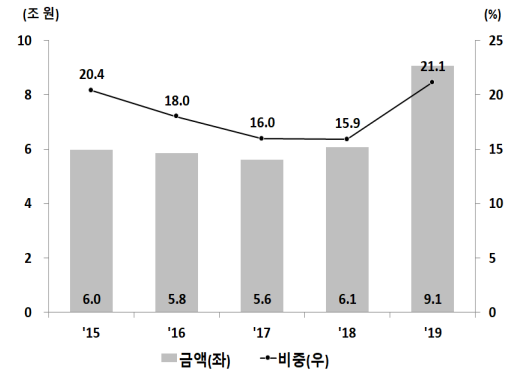
○ 반면, 총자본 가운데 이익잉여금과 신종자본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축소됨

〈그림 64〉 이익잉여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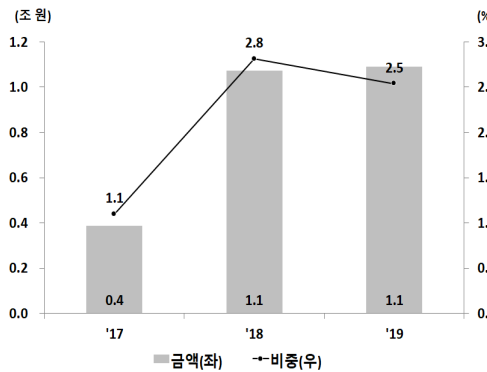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5〉 기타포괄손익누계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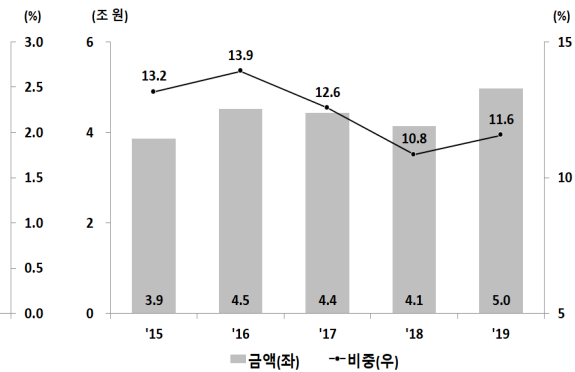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6〉 신종자본증권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7〉 기타자본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. 수익성

가. 당기순이익

■ 2019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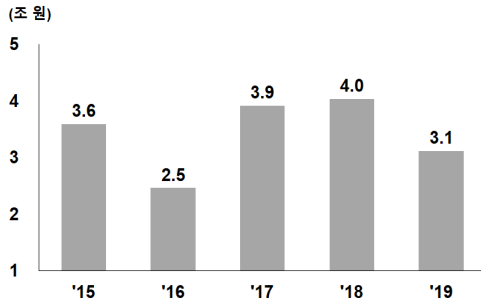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2.7% 감소한 3.1조 원 흑자를 기록함

- 금리 하락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증가로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된 데다 2018년 주식 처분이익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투자영업이익도 감소함

○ 2019년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1.7% 감소한 2.2조 원 흑자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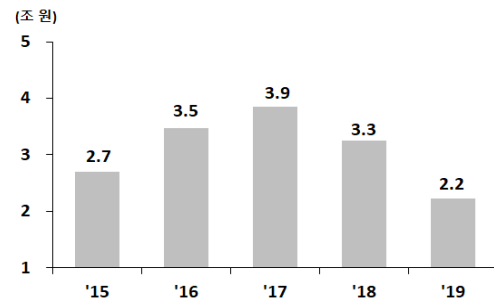
- 보험영업손실은 장기손해보험 판매경쟁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, 자동차보험 손해를 확대 등으로 증가함
- 그러나 투자영업이익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처분이익 확대와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 증가로 확대됨

〈그림 68〉 생명보험 당기순이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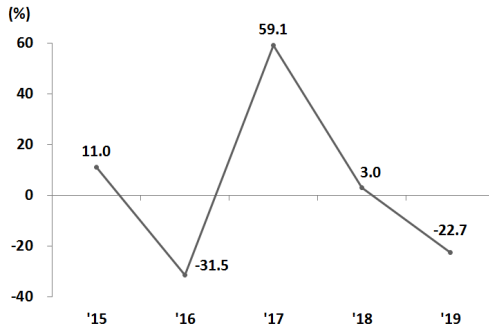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9〉 손해보험 당기순이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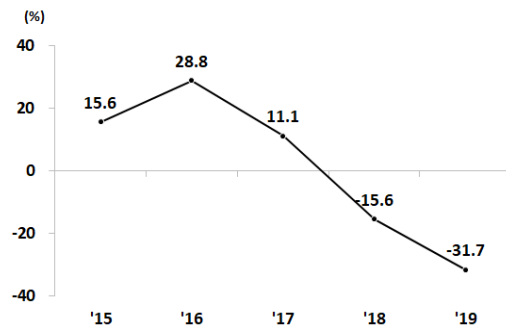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0〉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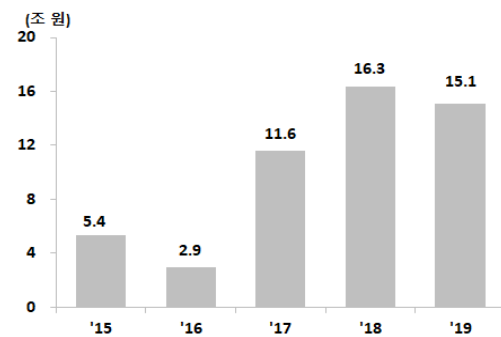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71〉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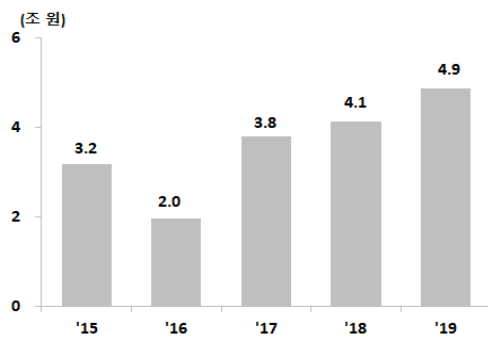
■ 2019년 은행 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.7% 감소한 15.1조 원을, 증권 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8.2% 증가한 4.9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72〉 은행 당기순이익



주: 1)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
2)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015년 6월 이후 합병됨
자료: 금융감독원

〈그림 73〉 증권 당기순이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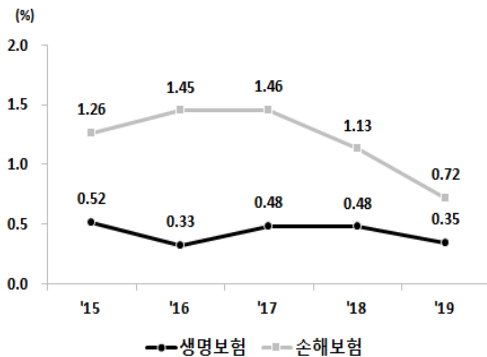
주: 노무라, 다이와, 리딩, 맥쿼리, 신영, 코리아에셋은 3월 말 결산이므로 결산시점을 기간 맞춤함
자료: 금융감독원

나. ROA, ROE

■ 2019년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ROA와 ROE 모두 당기순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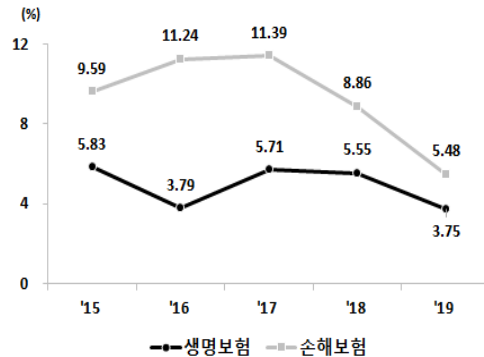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ROA는 0.35%로 전년 대비 0.13%p 하락하였으며, 손해보험산업의 ROA는 0.72%로 전년 대비 0.41%p 하락함
-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대비 1.8%p 하락한 3.75%를, 손해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보다 3.38%p 하락한 5.48%를 나타냄

〈그림 74〉 보험산업 ROA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5〉 보험산업 ROE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. 보험영업이익 관련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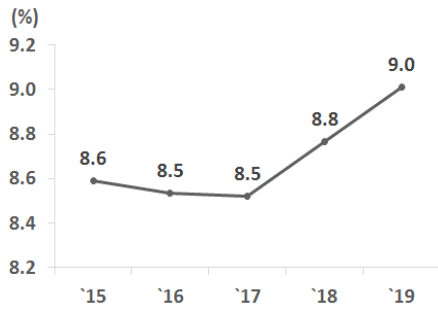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

■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해지율과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, 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함

- 생명보험산업 해지율은 가계부채 부담 확대 등으로 2019년 전년 대비 0.2%p 상승한 9.0%를 기록함
- 2019년 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0.5%p 하락한 13.1%를 나타냈으며, 이는 사업비 증가 효과보다 퇴직연금 확대에 의한 수입보험료 증가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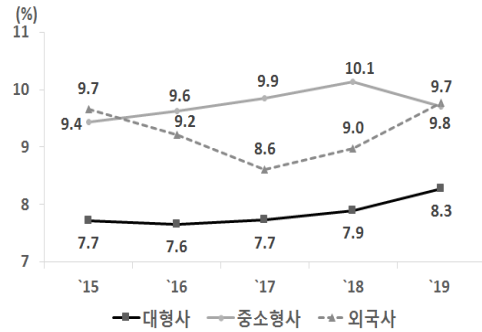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 증가로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, 2019년에는 78.5%를 나타냄

〈그림 76〉 생명보험 해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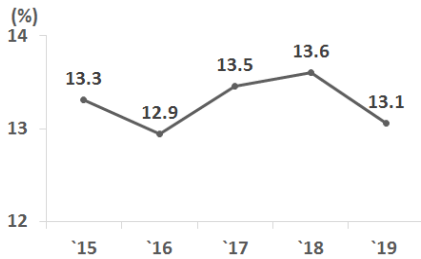
주: 해지율 = (효력상실액 + 해지액) / (연초보유계약액 + 신계약액)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7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해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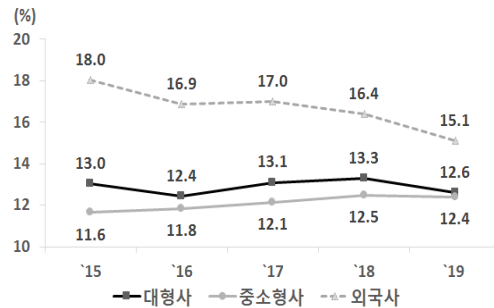
주: 해지율 = (효력상실액 + 해지액) / (연초보유계약액 + 신계약액)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8〉 생명보험 사업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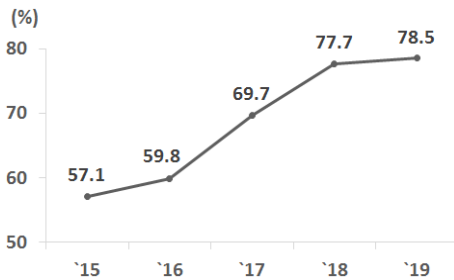
주: 사업비율 = 사업비 / 수입보험료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9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사업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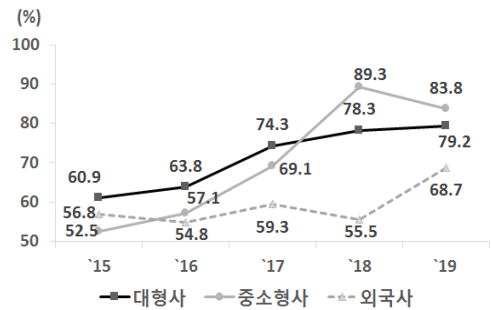
주: 사업비율 = 사업비 / 수입보험료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0〉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



주: 보험금 지급률 = 지급보험금 / 수입보험료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1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금 지급률



주: 보험금 지급률 = 지급보험금 / 수입보험료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손해보험

■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반 상승으로 전년 대비 2.7%p 상승한 105.7%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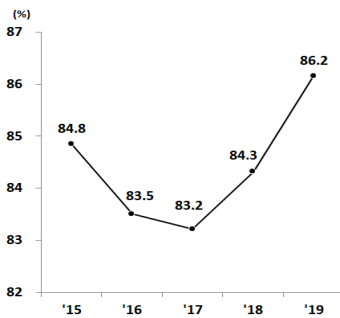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손해율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증가로 전년 대비 1.9%p 상승한 86.2%를 나타냄

-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정비수가 인상 및 취업가능연한 상향조정 등에 따른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2018년 86.4%에서 2019년 92.8%까지 상승함

○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사업비율은 GA를 중심으로 한 장기 보장성보험의 판매경쟁 확대로 19.5%(2018년 18.7%)까지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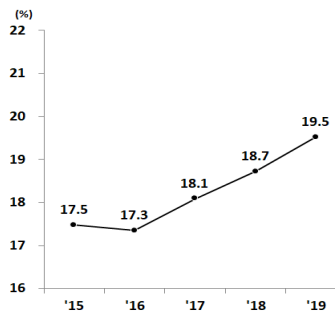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2.0%p 상승한 24.8%를 기록함

〈그림 82〉 손해보험 손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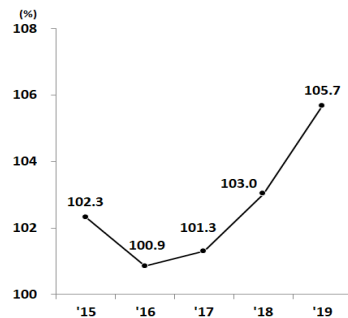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3〉 손해보험 사업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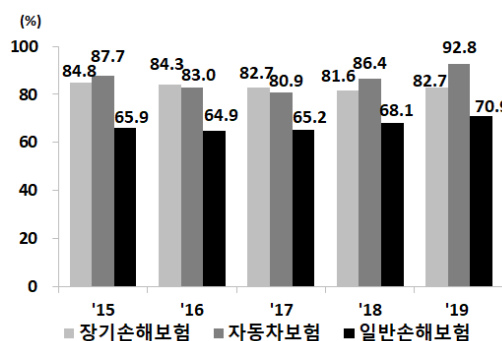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4〉 손해보험 합산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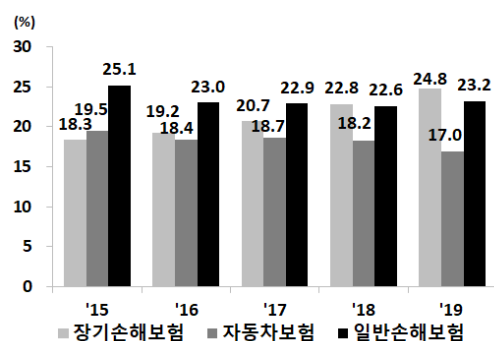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5〉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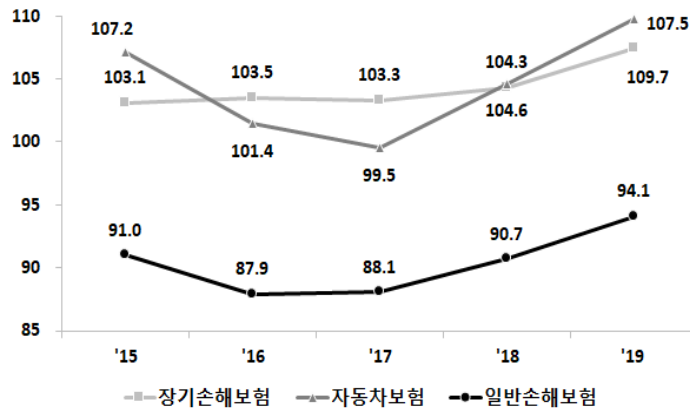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6〉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7〉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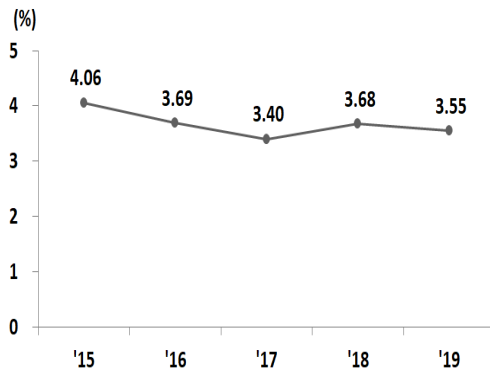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라. 투자영업이익 관련 지표

1) 운용자산이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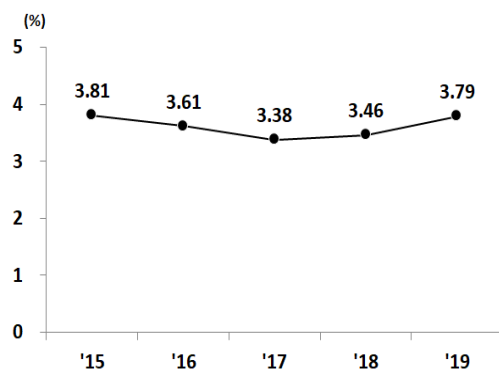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018년 주식처분이익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하락한 반면, 손해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채권 처분 이익 확대로 상승함
- 2019년 생명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대비 0.13%p 하락한 3.55%를 기록함
- 2019년 손해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대비 0.33%p 상승한 3.79%를 나타냄

〈그림 88〉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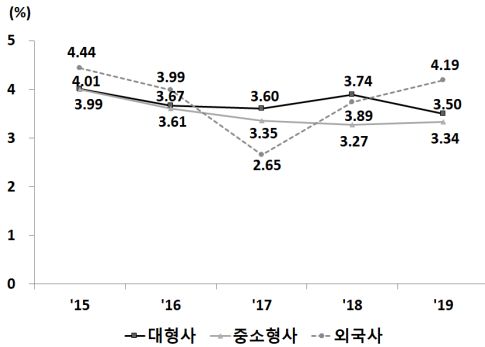
〈그림 89〉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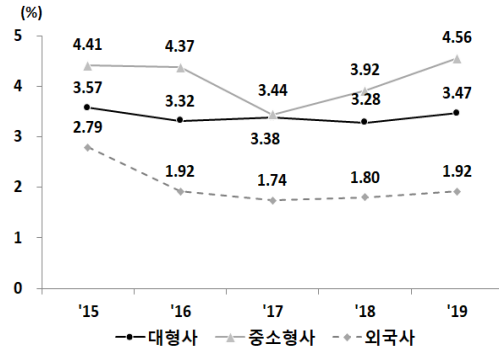
■ 최근 생명보험의 경우 외국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았으며, 손해보험의 경우 중소형사의 운용자산이익률 상승세가 다른 그룹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남

〈그림 90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91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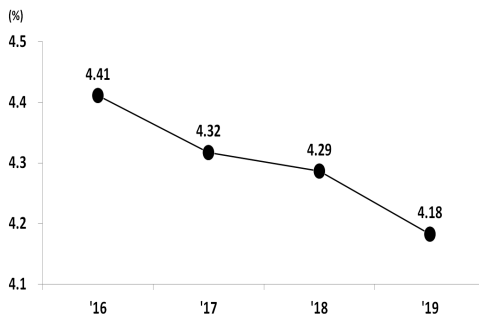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

■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2015년 4.41%에서 2019년 4.18%까지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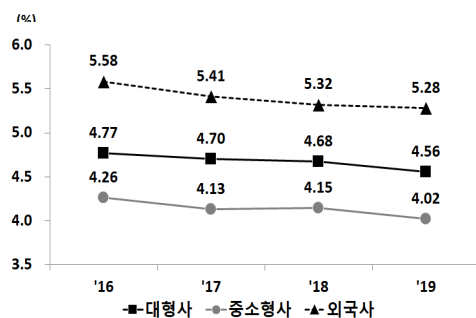
- 최근 4% 초반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3% 중·후반의 운용자산이익률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
- 그룹별로 보면,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높은 외국사의 적립금 평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, 중소형사의 적립금 평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

〈그림 92〉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



주: 평균 금리 = (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× 적용 금리수준의 중간 값) / 총 보험료 적립금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93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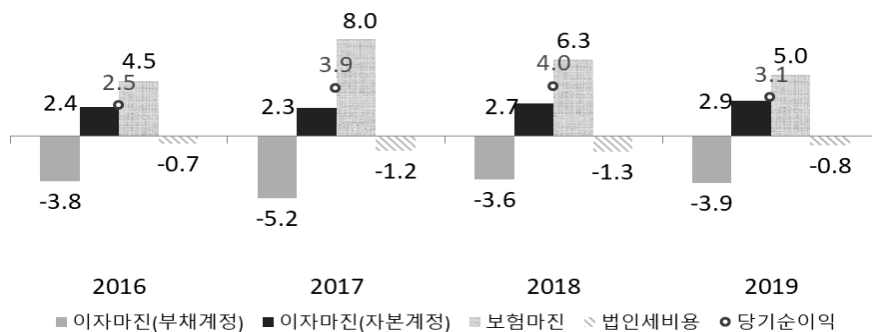
마. 이익구성

1)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

■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이자역마진 규모는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확대되었으며, 보험마진도 감소함

- 자본계정의 이자마진은 전년 대비 0.2조 원 증가하였는데, 이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확대에 따라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임
- 부채계정의 이자역마진은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전년에 비하여 0.3조 원 확대됨
- 보험마진은 수입보험료 실적 부진과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.3조 원 감소함
- 여전히 보험부채적립이율이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높은 이자역마진은 지속되어 저금리 환경에 취약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

〈그림 94〉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



주: 1) 이자마진(부채계정) = 책임준비금 평균 잔액 × (자산운용이익률 -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)

2) 이자마진(자본계정) = 자본 평균 잔액 × 자산운용이익률

3) 보험마진 =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- 이자마진(부채계정) - 이자마진(자본계정)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손해보험

가) 당기순이익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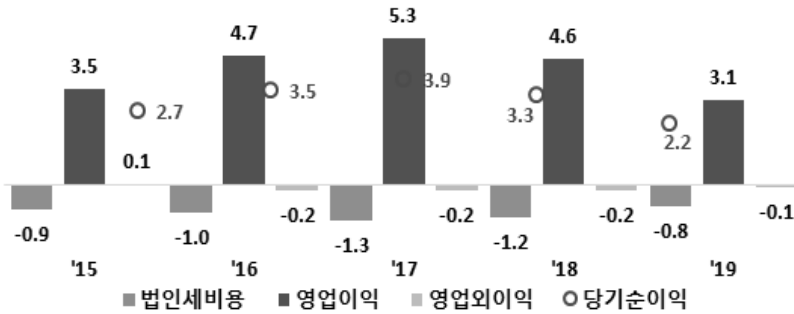
■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 가운데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

-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2.2조 원이었으며, 영업이익은 3.1조 원 흑자, 영업외이익은 0.1조 원 적자를 기록함

- 최근 손해율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 흑자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당기순이익 역시 감소 추세를 보임

〈그림 95〉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구성

(단위: 조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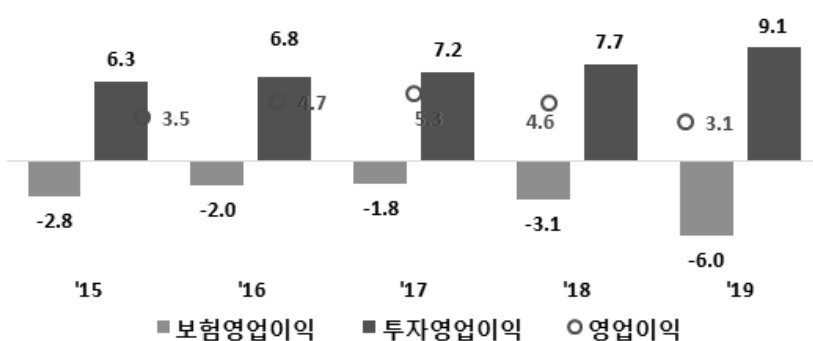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) 영업이익 구성

- 손해보험산업 영업이익은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, 보험영업이익 적자를 투자영업이익 흑자가 보전하는 모습을 보임
- 2019년 영업이익은 3.1조 원이었으며, 보험영업이익은 6.0조 원 적자를, 투자영업이익은 9.1조 원 흑자를 기록함
- 2019년 보험영업이익 적자규모가 손해율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, 투자영업이익 흑자규모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처분이익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확대됨

〈그림 96〉 손해보험 영업이익 구성

(단위: 조 원)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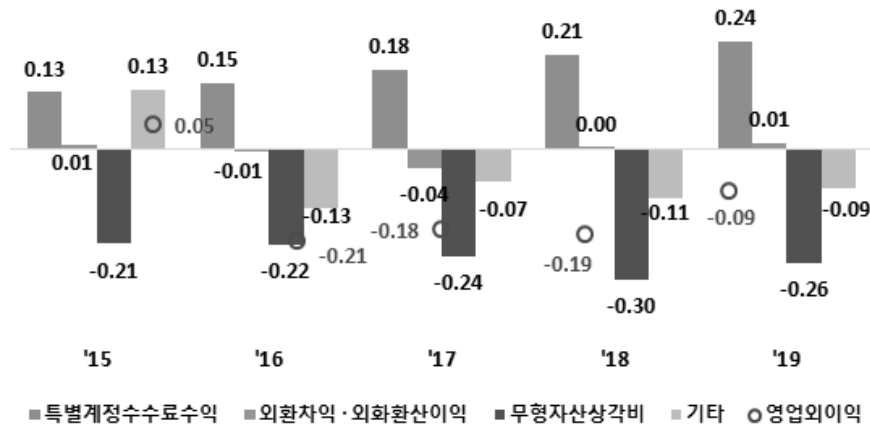
다) 영업외이익 구성

■ 손해보험산업 영업외이익 중 특별계정 수수료 수익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

○ 2019년 영업외이익은 0.09조 원 적자를 나타냈으며, 이 가운데 특별계정수수료 수익은 0.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0.03조 원 증가하였으며 무형자산상각비는 0.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0.4조 원 감소함

〈그림 97〉 손해보험 영업외이익 구성

(단위: 조 원)



- 주: 1) 외환차익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 회수 및 외화부채 변제 시 발생한 환차익을 의미함
 2) 외화환산이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익을 의미함
 3) 무형자산상각비는 개발비, 소프트웨어, 기타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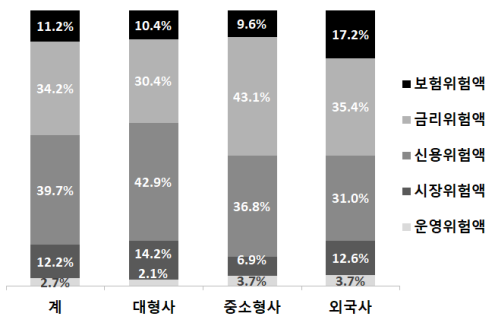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. 리스크⁷⁾

가. 총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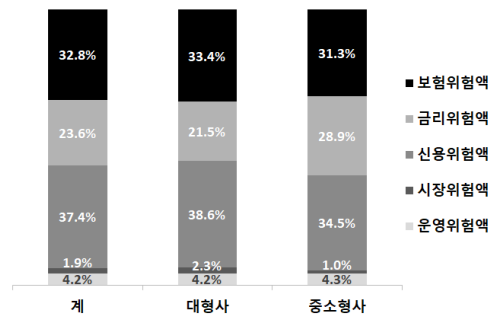
- 2019년 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 유형별로 각 리스크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남
-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 비중이 42.9%로 가장 높은 반면,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금리위험 비중이 각각 43.1%, 35.4%로 높게 나타남
-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, 중소형사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과 보험위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% 이상임

〈그림 98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



주: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, 금리위험액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99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



주: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, 금리위험액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나. 보험리스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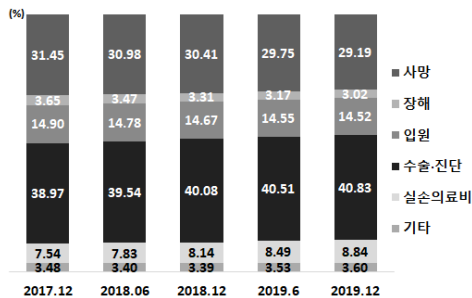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

-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져 중 수술·진단,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망, 장해,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

7) 본장은 반기마다 자세히 공시되는 위험관리 부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며, 이번 호에서는 2019년 말 공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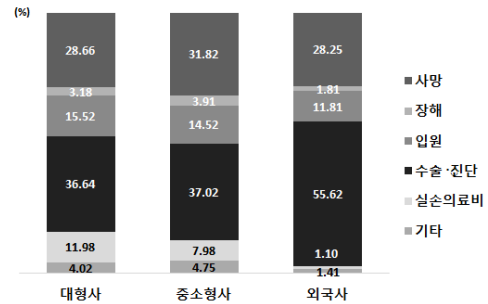
- 수술·진단과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32%p, 0.35%p 증가한 반면, 사망, 장애, 입원 보장 비중은 각각 0.56%p, 0.15%p, 0.03%p 감소함
- 외국사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비해 수술·진단 보장 비중이 55.62%로 큰 편이고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은 1.10%로 작은 편임

〈그림 100〉 보장 익스포저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사망, 장애, 입원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1〉 회사 유형별 보험보장 익스포저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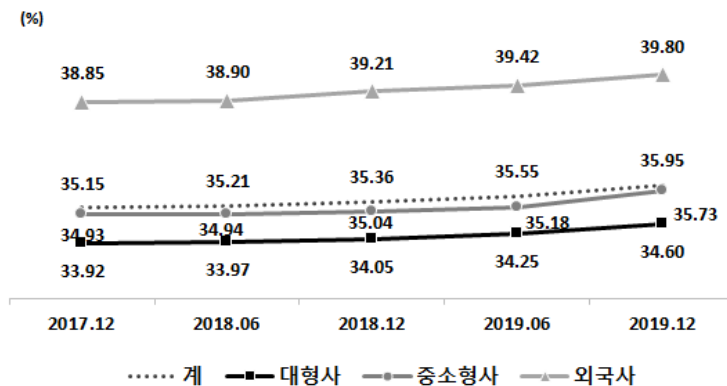


주: 위에서부터 사망, 장애, 입원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- 2019년 말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.40%p 상승한 35.95%를 기록함

- 중소형사의 경우 직전 반기 대비 0.55%p 상승한 35.73%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, 대형사와 외국사는 각각 0.35%p, 0.38%p 상승함

〈그림 102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가격위험계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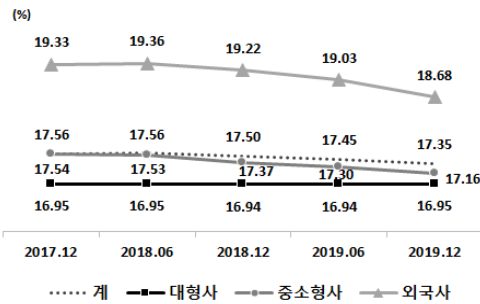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■ 사망, 입원 보장 리스크는 직전 반기 대비 하락한 반면, 장애, 수술·진단, 실손의료비 보장 리스크는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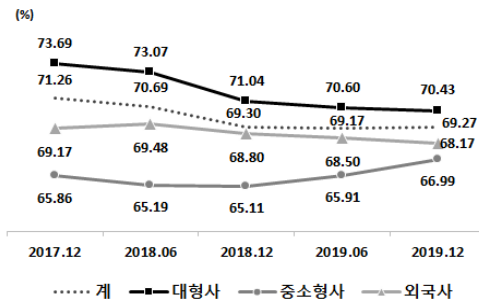
- 사망과 입원 보장의 경우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보험가격위험계수 하락하여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10%p, 0.07%p 하락함
- 또한 장애 보장 보험가격위험계수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는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17%p, 0.33%p 하락한 반면, 중소형사는 1.08%p 상승하여 전체 0.10%p 상승함
-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, 중소형사(2.17%p), 외국사(1.77%p), 대형사(1.75%p) 순으로 상승함

〈그림 103〉 보험 보장별 보험가격위험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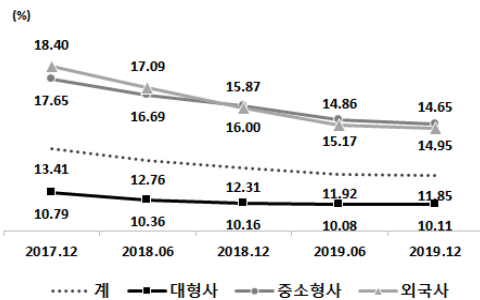
(1) 사망보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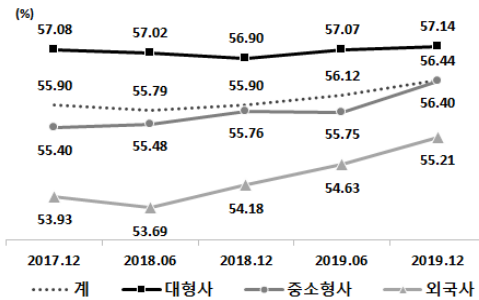
(2) 장애보험



(3) 입원보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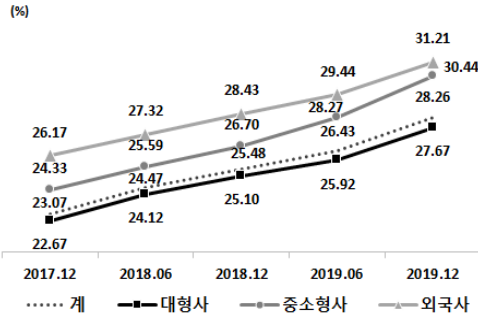
(4) 수술·진단보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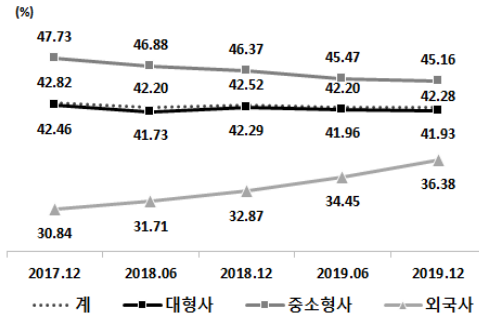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3〉 계속

(5) 실손의료비보험



(6) 기타



자료: 경영공시

2) 손해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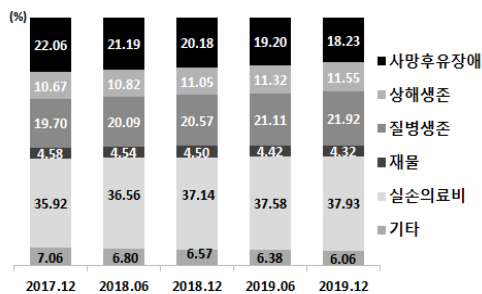
가) 장기손해보험

■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저 중 상해생존, 질병생존,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망후유장애, 재물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

○ 상해생존, 질병생존, 실손의료비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23%p, 0.81%p, 0.35%p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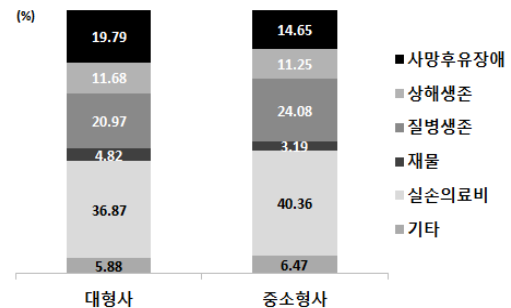
○ 반면, 사망후유장애와 재물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97%p, 0.10%p 감소함

〈그림 104〉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, 상해생존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5〉 회사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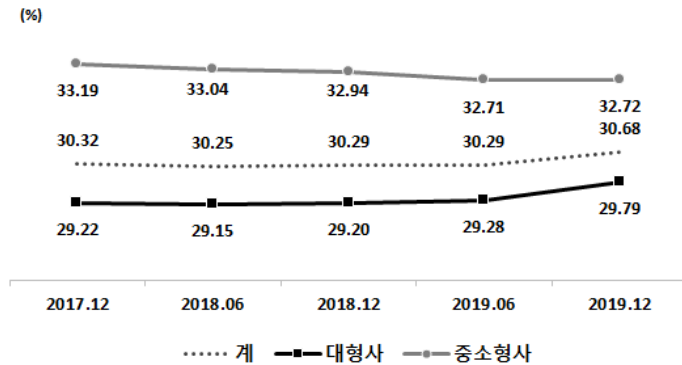


주: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, 상해생존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■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장기보험상품의 판매 증가로 보유위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직전 반기 대비 0.39%p 상승함

○ 중소형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보장 리스크가 모두 축소되었으나 대형사(0.51%p)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상승세를 견인함

〈그림 106〉 회사 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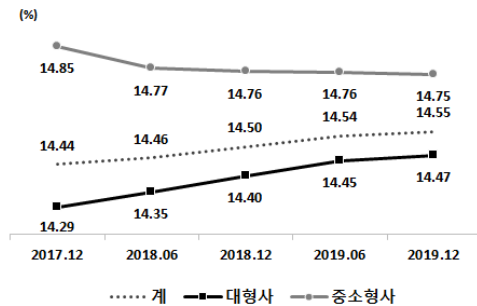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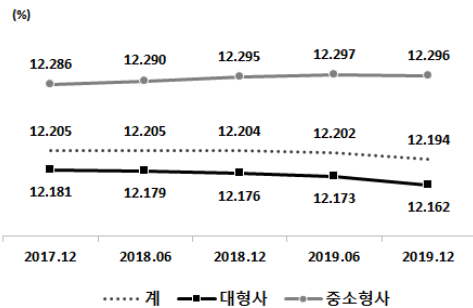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경영공시

■ 상해생존, 질병생존, 실손의료비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상승한 반면, 사망후 유장애, 재물 보험가격위험계수는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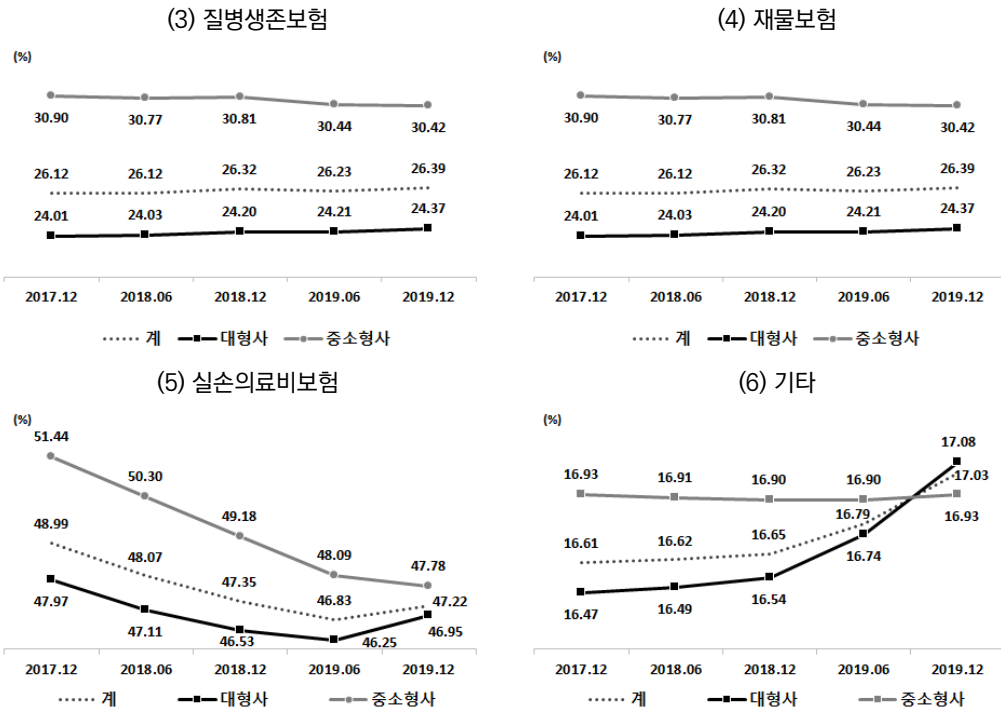
○ 실손의료비의 경우 생명보험산업과 달리 보장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형사의 경우 직전 반기 대비 상승(0.70%p)함

〈그림 107〉 장기손해보험 보장별 보험가격위험계수
(1) 사망후유장애보험 (2) 상해생존보험

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7〉 계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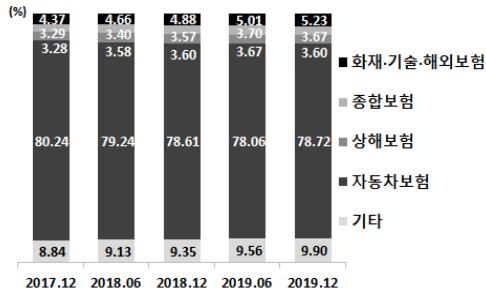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나)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

■ **[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저]** 전체 익스포저 중 화재·기술·해외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으나, 종합보험과 상해보험 비중은 감소함

- 화재·기술·해외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22%p, 0.66%p 증가한 반면, 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은 직전 반기 대비 0.03%p, 0.07%p 감소함
-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중소형사가 직전 반기 대비 0.73%p 감소한 반면, 대형사가 0.78%p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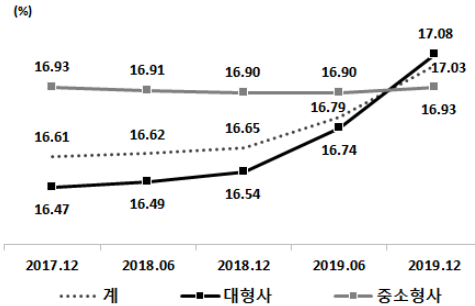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08〉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
익스포저 비중



주: 1) 위에서부터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 순임
2) 기타에는 해상보험, 근재·책임보험, 기타일반보험, 외국인보험이 포함됨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9〉 회사 유형별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
익스포저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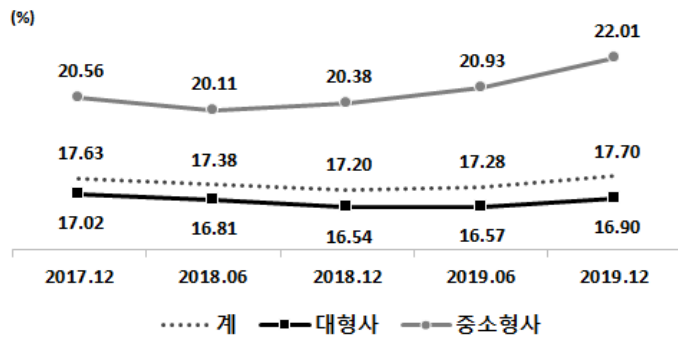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위에서부터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 순임
2) 기타에는 해상보험, 근재·책임보험, 기타일반보험, 외국인보험이 포함됨

자료: 경영공시

■ [보험가격위험계수]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.42%p 상승하였으며, 대형사(0.33%p)에 비해 중소형사(1.08%p)의 리스크가 크게 확대됨

〈그림 110〉 회사 유형별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■ [보험가격위험계수]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하락한 반면, 상해보험, 자동차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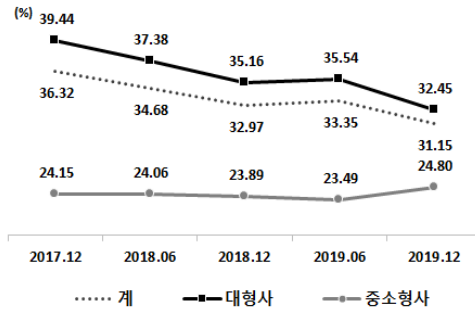
○ 대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보험가격위험계수가 직전 반기 대비 모두 하락하였으며, 특히 화재·기술·해외보험의 하락폭(3.09%p)이 높게 나타남

○ 자동차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합산비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53%p, 1.51%p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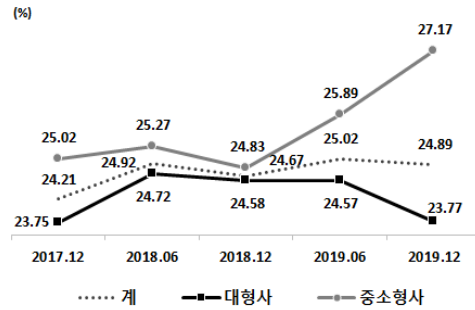
- 상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대형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사의 단체상해보험 매출 확대 등으로 직전 반기 대비 2.22%p 상승함

〈그림 111〉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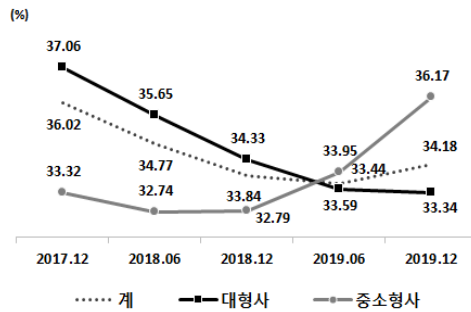
(1) 화재·기술·해외보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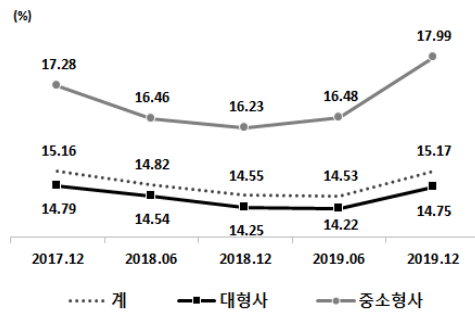
(2) 종합보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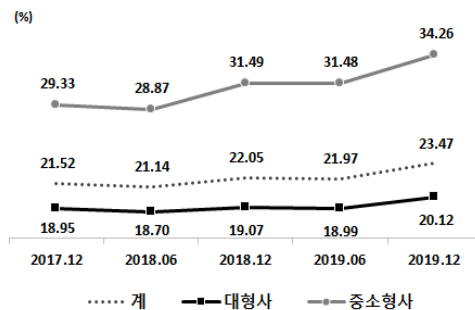
(3) 상해보험



(4) 자동차보험



(5) 기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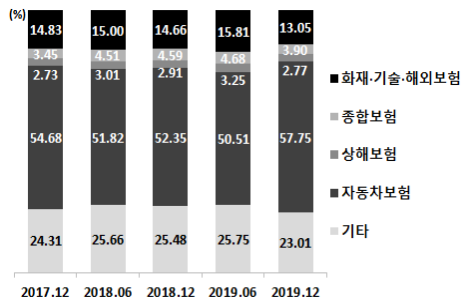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■ [지급준비금위험 익스포저]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는 직전 반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감소함

○ 자동차보험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7.24%p 증가하였으며, 특히 대형사(7.88%p)가 크게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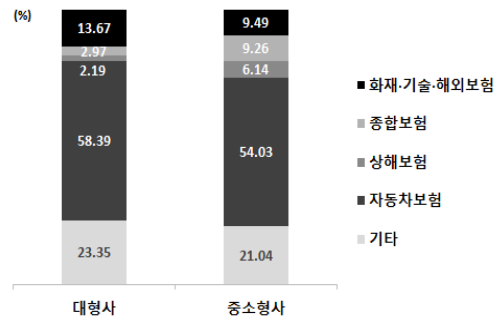
○ 중소형사의 경우 상해보험 익스포저 비중이 0.05%p 소폭 상승함

〈그림 112〉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
익스포저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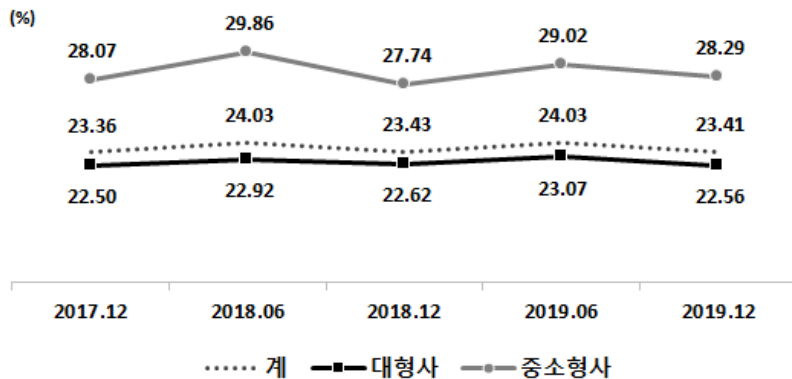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13〉 회사 유형별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
익스포저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■ [지급준비금위험계수] 2019년 말 지급준비금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.62%p 하락하였으며, 대형사(0.51%p)에 비해 중소형사(0.73%p)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

〈그림 114〉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지급준비금위험계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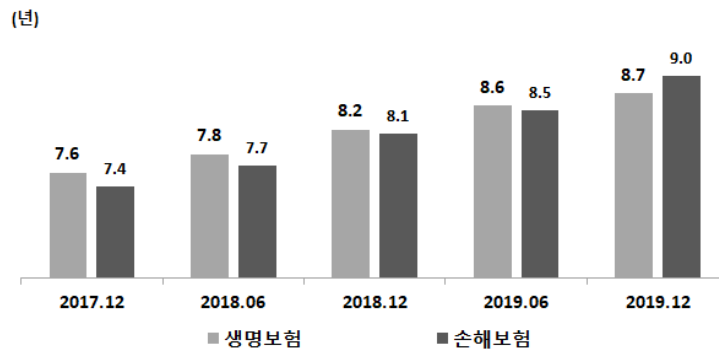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다. 자산리스크

1) 금리위험

-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의 자산 듀레이션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1년, 0.5년 확대됨
- 저금리에 따른 금리 역마진에 대응하여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등 자산듀레이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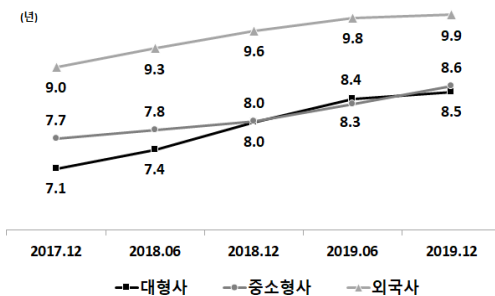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15〉 자산듀레이션 추이


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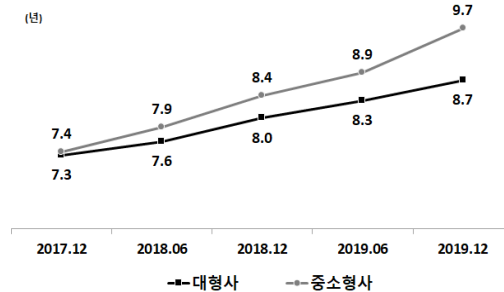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자산듀레이션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음
- 생명보험 중소형사는 직전 반기 대비 0.3년을 손해보험 중소형사는 0.8년을 확대시킴

〈그림 116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

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17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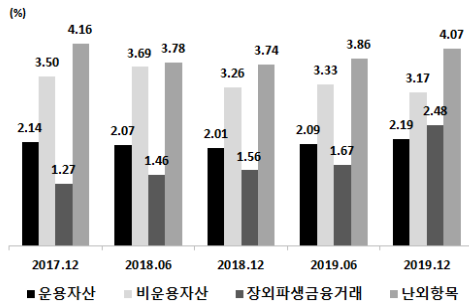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경영공시

2) 신용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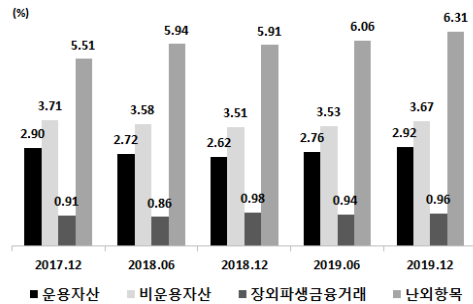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의 신용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.16%p 하락한 반면, 손해보험은 0.16%p 상승함
- 비운용자산의 경우 생명보험은 0.16%p 하락한 반면, 손해보험은 0.14%p 상승함
- 손해보험 중소형사는 모든 항목에서 신용위험계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118〉 생명보험 신용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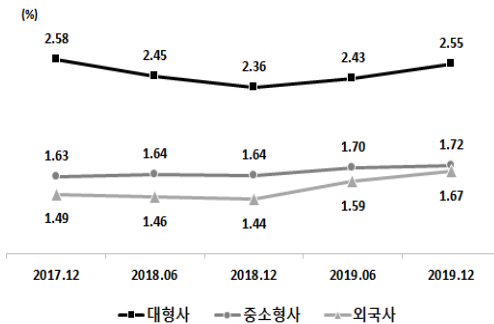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19〉 손해보험 신용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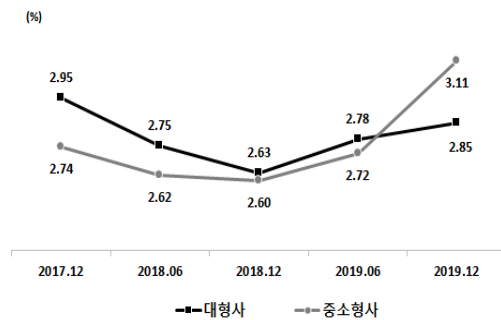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신용위험계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는 직전 반기 대비 0.12%p 상승하였고,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각각 0.02%p, 0.08%p 상승함
- 손해보험도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07%p, 0.39%p 상승함

〈그림 120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21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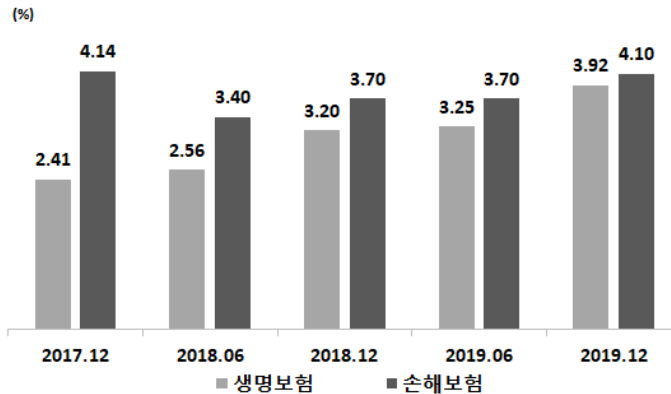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3) 시장위험

■ 2019년 말 시장위험계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생명보험, 손해보험산업 모두 상승함

- 생명보험은 시장금리 하락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⁸⁾
- 손해보험은 수익증권 및 위험대출 비중이 높아 주가 하락, 신용스프레드 확대,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된 것으로 보임⁹⁾

〈그림 122〉 시장위험계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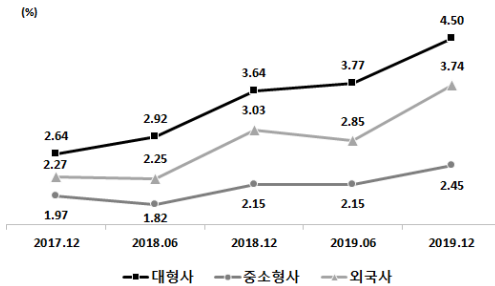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■ 손해보험 중소형사의 경우 시장위험계수가 직전 반기 대비 하락한 반면, 대형사는 큰 폭으로 증가함

8) 신한금융투자(2020. 4. 7), 「생명보험, 신용위험 및 수익성 분석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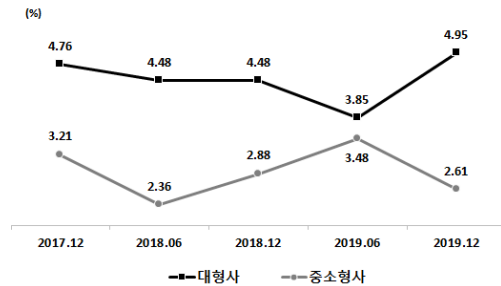
9) 황인창(2020. 4. 13), 「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와 보험산업 대응」, 『KIRI 리포트』, 제492호, 보험연구원

〈그림 123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24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라.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(LAT: Liability Adequacy Tes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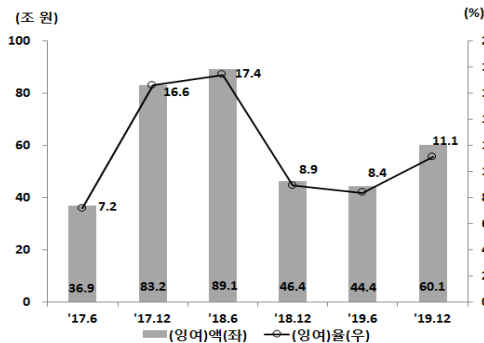
■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(평가대상준비금과 LAT 평가액의 차이) 비율은 2019년 6월 말 8.4%에서 2019년 12월 말 11.1%로 증가함

○ LAT 잉여율은 2017년 6월 7.2%로 낮았으나 2018년 6월 17.4%로 증가하였다 2018년 12월 8.9%로 감소하였음

■ 회사 유형별로 보면 대형사, 중소형사, 외국사의 LAT 잉여율 추이는 비슷하나 대기업은 낮은 수준을 중소형사나 외국사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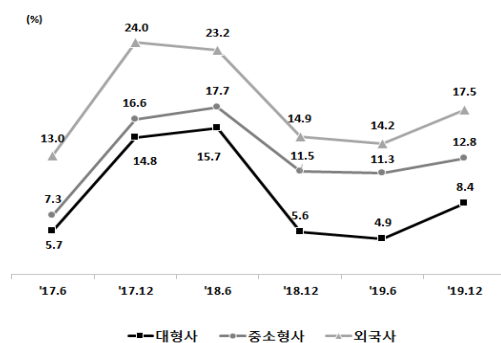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 12월 말 대형사의 LAT 잉여율은 8.4%, 중소형사는 12.8% 그리고 외국사의 경우는 17.5%임

〈그림 125〉 생명보험회사 LAT 잉여율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 경영공시

〈그림 126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LAT 잉여율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 경영공시

4. 시장경쟁

가. 시장점유율

1) 생명보험 시장점유율

■ 그룹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2019년 외국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,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축소됨

-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18년 19.3%에서 2019년 20.9%로 확대됨
- 반면, 같은 기간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34.2%에서 32.5%로 축소됨
- 대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46.6%로 전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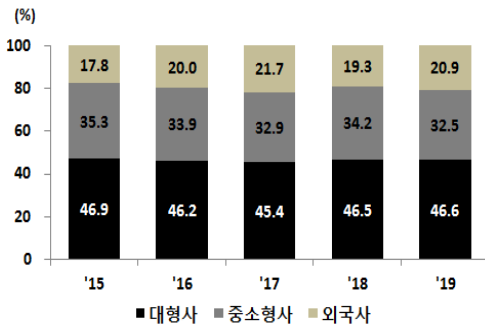
■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2019년 외국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

- 이는 일부 외국사가 퇴직연금과 보장성보험의 신규 판매를 확대하였기 때문임

■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¹⁰⁾는 1,037로 전년 대비 34 상승하였으며,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800으로 전년 대비 199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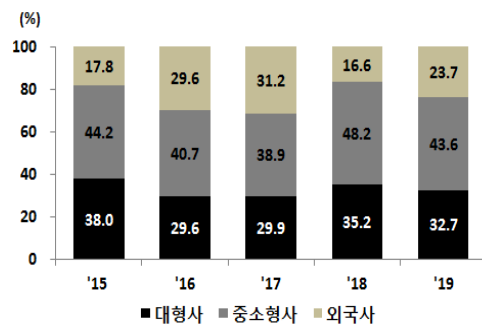
- 특히,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2016년 이후 하락하고 있음

〈그림 127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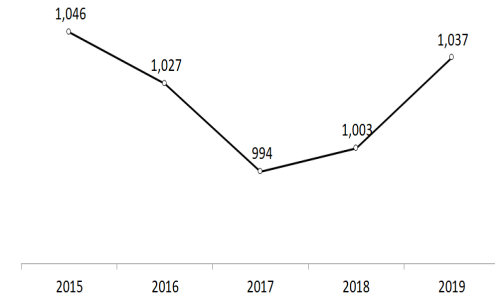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28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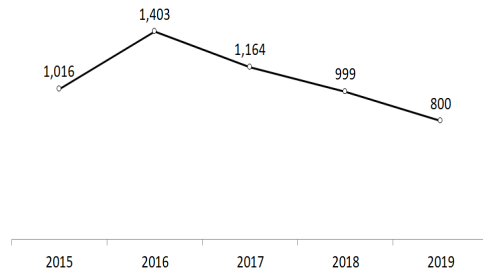
10)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, 일반적으로 지수가 1,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

〈그림 129〉 생명보험 원수보험료 기준
허핀달 지수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0〉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
허핀달 지수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손해보험 시장점유율

■ 손해보험산업의 그룹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확대되고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축소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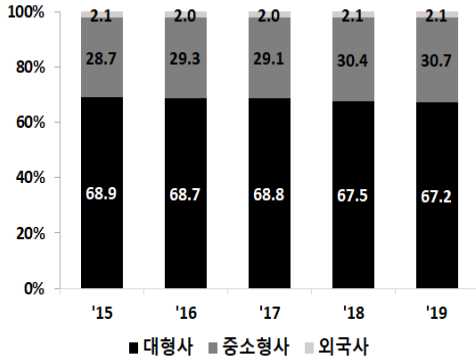
- 중소형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2015년 28.7%에서 2019년 30.7%로 2.0%p 확대된 반면, 같은 기간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68.9%에서 67.2%로 1.7%p 축소됨

■ 장기손해보험의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2019년 대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반면, 2019년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됨

- 대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17년 58.5%에서 2018년 43.6%로 축소되었으나, 2019년에는 46.5%로 전년 대비 2.9%p 확대됨
- 중소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18년 55.8%에서 2019년 52.4%로 전년 대비 3.4%p 축소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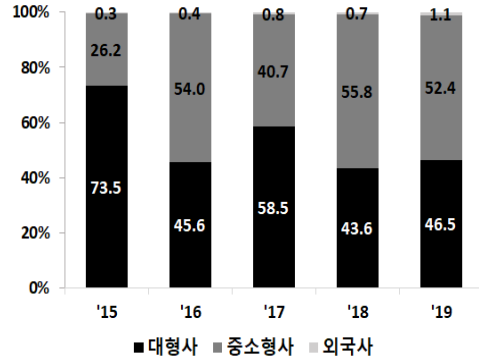
■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,138로 전년 대비 1 상승하였으며,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,833으로 전년 대비 167 하락함

〈그림 131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그룹별
시장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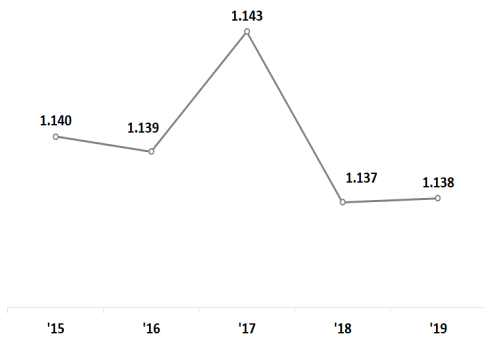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2〉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그룹별
시장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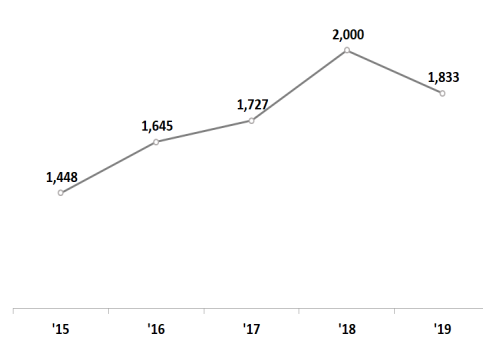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3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
허핀달 지수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4〉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
허핀달 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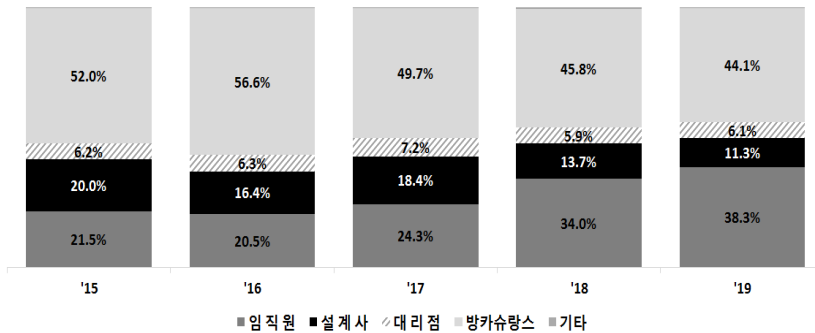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. 판매채널

1) 생명보험 판매채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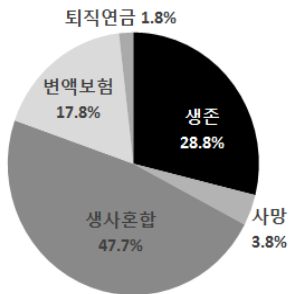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산업의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보험료 비중은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
- 이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주요 판매 상품인 저축성보험의 신규 판매가 부진하였기 때문임
- 반면, 임직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퇴직연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
〈그림 135〉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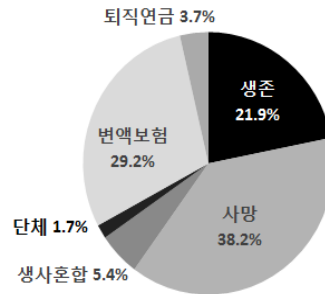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6〉 방카슈랑스 채널 종목별 비중 (2019년)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7〉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(2019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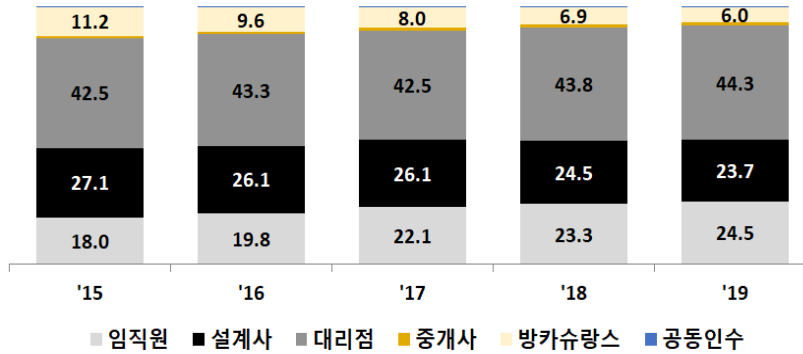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손해보험 판매채널

- 손해보험산업의 대리점과 임직원 채널이 판매한 원수보험료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,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이 판매한 원수보험료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
- 대리점 채널 비중은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증가로 2015년 42.5%에서 2019년 44.3%로 확대되었으며, 임직원 채널 비중은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18.0%에서 24.5%로 증가함
- 반면, 같은 기간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중은 각각 27.1%, 11.2%에서 23.7%와 6.0%로 축소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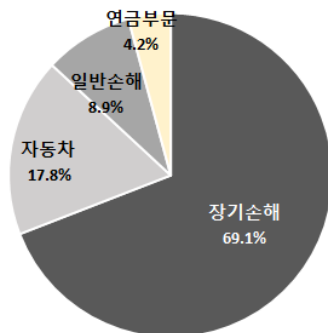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38〉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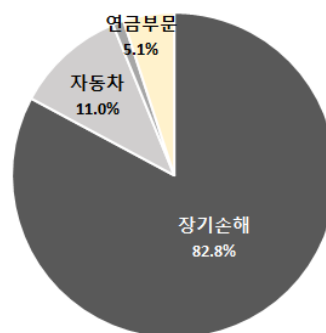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9〉 대리점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(2019년 4/4분기)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40〉 설계사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(2019년 4/4분기)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보험연구원(KIRI) 발간물 안내

※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, 정책보고서,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.

■ 연구보고서

- 2017-1 보험산업 미래 / 김석영·윤성훈·이선주 2017.2
- 2017-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/ 전용식·채원영 2017.2
- 2017-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/ 정호열 2017.2
- 2017-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/ 정원석·강성호·마지혜 2017.3
- 2017-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/ 류건식·강성호·김동겸 2017.3
- 2017-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/ 이태열·최장훈·김유미 2017.4
- 2017-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/ 정봉은 2017.5
- 2017-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/ 이승준·정인영 2017.5
- 2017-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/ 조영현·이혜은 2017.8
- 2017-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/ 김대환 2017.8
- 2017-11 인슈어테크 혁명: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/ 박소정·박지윤 2017.8
- 2017-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/ 이기형·이규성 2017.9
- 2017-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/ 권영준 2017.9
- 2017-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동향분석실 2017.10
- 2017-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동향분석실 2017.11
- 2017-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/ 강성호·류건식·김동겸 2017.12
- 2017-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/ 송윤아·이소양 2017.12
- 2017-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/ 최장훈·이태열·김미화 2017.12
- 2017-19 연금세제 효과연구 / 정원석·이선주 2017.12
- 2017-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/ 최창희·한성원 2017.12
- 2017-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/ 김세중·김유미 2017.12
- 2017-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/ 지홍민 2017.12
- 2018-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/ 백영화·박정희 2018.1
- 2018-2 건강생활서비스 공·사 협력 방안 / 조용운·오승연·김동겸 2018.2
- 2018-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/ 류건식·강성호·이상우 2018.2
- 2018-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/ 조영현·이혜은 2018.2
- 2018-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/ 김석영·김세영·이선주 2018.2
- 2018-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/ 조재린·정성희 2018.3
- 2018-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/ 전용식·이혜은 2018.3
- 2018-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/ 오승연·김석영·이선주 2018.4

- 2018-9 주요국 공·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/ 정성희·이태열·김유미 2018.4
- 2018-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/ 이정택·임태준·김동겸 2018.4
- 2018-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/ 황현아·백영화·권오경 2018.8
- 2018-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동향분석실 2018.9
- 2018-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/ 최준규 2018.9
- 2018-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/ 이경희 2018.9
- 2018-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/ 이진무 2018.9
- 2018-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: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/ 이항석 2018.9
- 2018-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/ 백영화·손민숙 2018.10
- 2018-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/ 황인창·임준환·채원영 2018.10
- 2018-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/ 조용운·김동겸 2018.10
- 2018-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/ 강성호·류건식·김동겸 2018.10
- 2018-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/ 임준·이상우·이소양 2018.11
- 2018-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/ 윤성훈·김석영·한성원·손민숙 2018.11
- 2018-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/ 성주호 2018.11
- 2018-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: 점검 및 대응 / 김현수·권혁준 2018.11
- 2018-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: 보험부채 중심으로 / 임준환·최장훈·한성원 2018.11
- 2018-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/ 김세중·김유미 2018.11
- 2018-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: 2019년 및 중장기 / 동향분석실 2018.11
- 2018-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/ 전용식·김유미·최예린 2018.12
- 2018-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/ 최창희·홍민지 2018.12
- 2018-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/ 정원석·김석영·박정희 2018.12
- 2018-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/ 김해식 2018.12
- 2018-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/ 조영현·황인창·이혜은 2018.12
- 2019-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/ 김범 2019.1
- 2019-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/ 이승준·정인영 2019.8
- 2019-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.10
- 2019-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/ 백영화·박정희 2019.10
- 2019-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-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- / 정세창 2019.10
- 2019-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/ 홍지민 2019.10
- 2019-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/ 김석영·이규성 2019.11
- 2019-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/ 류건식·강성호·이상우 2019.11
- 2019-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/ 양승현·손민숙 2019.11
- 2019-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동향분석실 2019.12
- 2019-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/ 강성호·김혜란 2019.12
- 2019-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/ 송인정 2019.12

2019-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/ 정원석·김석영·정인영 2019.12

2020-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/ 송윤아·한성원 2020.1

■ 연구보고서(구)

2008-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/ 최영목·장동식·김동겸 2008.1

2008-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/ 정호열 2008.6

2008-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/ 류건식·이경희·김동겸 2008.3

2009-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/ 안철경·권오경 2009.1

2009-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/ 기승도 2009.2

2009-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/ 유경원·이혜은 2009.3

2009-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/ 류건식·이창우·김동겸 2009.3

2009-5 일반화선형모형(GLM)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/ 기승도·김대환 2009.8

2009-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/ 기승도·김대환·김혜란 2010.1

2010-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/ 유경원·이혜은 2010.4

2010-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/ 황진태·이경희 2010.5

2010-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/ 진 익·김동겸 2010.7

■ 정책보고서(구)

2008-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/ 이기형 2008.3

2008-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/ 유지호·최 원 2008.3

2008-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이진면·이태열·신종협·황진태·유진아·김세환·이정환·박정희·김세중·최이섭 2008.11

2009-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/ 진 익·이민환·유경원·최영목·최형선·최 원·이경아·이혜은 2009.2

2009-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/ 이경희 2009.3

2009-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/ 오영수·김경환·이종욱 2009.3

2009-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이진면·황진태·변혜원·이경희·이정환·박정희·김세중·최이섭 2009.12

2009-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/ 안철경·변혜원·권오경 2010.1

2010-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/ 송윤아 2010.3

2010-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이진면·김대환·이경희·이정환·최 원·김세중·최이섭 2010.12

2011-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/ 오영수·안철경·변혜원·최영목·최형선·김경환·이상우·박정희·김미화 2010.4

- 2011-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/ 오영수·김경환·박정희 2011.7
- 2011-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/ 이경희 2011.5
- 2011-4 저출산·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/ 윤성훈·류건식·오영수·조용운·진 익·유진아·변혜원 2011.7
- 2011-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/ 안철경·이경희 2011.11
- 2011-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윤성훈·황진태·이정환·최 원·김세중·오병국 2011.12
- 2012-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/ 조재린·이기형·정인영 2012.8
- 2012-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/ 이기형·변혜원·정인영 2012.10
- 2012-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/ 임준환·유진아·이경아 2012.11
- 2012-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: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/ 이기형·임준환·김해식·이경희·조영현·정인영 2012.12
- 2013-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/ 이창우·윤상호 2013.1
- 2013-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/ 류건식·김대환·이상우 2013.1
- 2013-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윤성훈·전용식·이정환·최 원·김세중·채원영 2013.2
- 2013-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/ 진 익·오병국·이성은 2013.3
- 2013-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/ 이승준·김해식·조재린 2013.5
- 2013-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윤성훈·전용식·최 원·김세중·채원영 2013.12
- 2014-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/ 이승준·강민규·이해랑 2014.3
- 2014-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/ 조재린·김해식·김석영 2014.3
- 2014-3 공·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/ 이태열·강성호·김유미 2014.4
- 2014-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윤성훈·김석영·김진억·최 원·채원영·이아름·이해랑 2014.11
- 2014-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·사건강보험 협력방안 / 조용운·김경환·김미화 2014.12
- 2015-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- IFRS와 RBC 연계방안 / 김해식·조재린·이경아 2015.2
- 2015-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윤성훈·김석영·김진억·최 원·채원영·이아름·이해랑 2015.11
- 2016-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/ 강성호·정봉은·김유미 2016.2
- 2016-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: DSGE 접근법 / 임태준·이정택·김혜란 2016.11
- 2016-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/ 동향분석실 2016.12

■ 경영보고서(구)

- 2009-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/ 이기형·한상용 2009.3
- 2009-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/ 진 익 2009.3
- 2009-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/ 진 익·유시용·이경아 2009.3
- 2009-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/ 최영목·최 원 2009.6
- 2010-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/ 안철경·권오경 2010.2
- 2010-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/ 오영수·김경환 2010.2

- 2010-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/ 류건식·이창우·이상우 2010.3
- 2010-4(1)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/ 산업연구실·정책연구실·동향분석실 2010.6
- 2010-4(2)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/ 금융제도실·재무연구실 2010.6
- 2010-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/ 권용재·장동식·서성민 2010.4
- 2010-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/ 김해식·최영목·김소연·장동식·서성민 2010.10
- 2010-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/ 최영수 2010.7
- 2011-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/ 안철경·변혜원·서성민 2011.1
- 2011-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/ 최영목·김소연·김동겸 2011.2
- 2011-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/ 기승도·황진태 2011.3
- 2011-4 보험회사의 상호서비스 기여방안 / 황진태·기승도·권오경 2011.5
- 2011-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/ 송윤아·정인영 2011.6
- 2011-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/ 조용운·황진태·김미화 2011.8
- 2011-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/ 류건식·김대환·이상우 2011.9
- 2011-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/ 김대환·류건식·이상우 2011.10
- 2012-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/ 조영현·전용식·이혜은 2012.7
- 2012-2 보험산업 비전 2020 : @ sure 4.0 / 진 익·김동겸·김혜란 2012.7
- 2012-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/ 김해식·김석영·김세영·이혜은 2012.9
- 2012-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/ 김대환·류건식·김동겸 2012.9
- 2012-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/ 유경원 2012.9
- 2012-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: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/ 조재린·황진태·권용재·채원영 2012.10
- 2013-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/ 전용식·채원영 2013.3
- 2013-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/ 기승도·조용운·이소양 2013.5
- 2016-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/ 임준환·정봉은·황인창·이혜은·김혜란·정승연 2016.4
- 2016-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: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/ 최창희·황인창·이경아 2016.5
- 2016-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/ 류건식·강성호·김동겸 2016.5

■ 조사보고서

- 2008-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/ 양성문·김진익·지재원·박정희·김세중 2008.2
- 2008-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/ 오영수 2008.3
- 2008-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안철경·기승도·이상우 2008.4
- 2008-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/ 이상우 2008.3
- 2009-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안철경·이상우·권오경 2009.3

- 2009-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/ 장동식 2009.3
- 2009-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/ 이진면·이정환·최이섭·정중영·최태영 2009.3
- 2009-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/ 김해식 2009.3
- 2009-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/ 진 익·김상수·김종훈·변귀영·유시용 2009.3
- 2009-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/ 이민환·전선애·최 원 2009.4
- 2009-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/ 서대교·오영수·김영진 2009.4
- 2009-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/ 임준환·이민환·윤건용·최 원 2009.7
- 2009-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/ 조용운·김세환·김세중 2009.7
- 2009-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·해약분석 / 류건식·장동식 2009.8
- 2010-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/ 신종협·최형선·최 원 2010.3
- 2010-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/ 서대교·김미화 2010.3
- 2010-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/ 이창우·이상우 2010.4
- 2010-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변혜원·박정희 2010.4
- 2010-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/ 송윤아 2010.5
- 2010-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/ 이승준·이종욱 2010.5
- 2010-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/ 조용운·서대교·김미화 2010.4
- 2010-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/ 진 익·김해식·유진아·김동겸 2011.1
- 2010-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/ 류건식·이창우·이상우 2010.7
- 2011-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/ 안철경·황진태·서성민 2011.6
- 2011-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김대환·최 원 2011.5
- 2011-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/ 진 익·김해식·김혜란 2011.7
- 2011-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/ 이창우·이기형 2011.8
- 2011-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/ 조용운·변혜원·이승준·김경환·오병국 2011.11
- 2012-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황진태·전용식·윤상호·기승도·이상우·최 원 2012.6
- 2012-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/ 이상우·오병국 2012.12
- 2012-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/ 장동식·김경환 2012.12
- 2013-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전용식·황진태·변혜원·정원석·박선영·이상우·최 원 2013.8
- 2013-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/ 조용운·황진태·조재린 2013.9
- 2013-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/ 김해식·변혜원·황진태 2013.12
- 2013-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/ 변혜원·조영현 2013.12
- 2014-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/ 박선영·권오경 2014.3
- 2014-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: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/ 정원석·강성호·이상우 2014.4
- 2014-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: 모집채널,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/ 한기정·최준규 2014.4
- 2014-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/ 황진태·박선영·권오경 2014.4
- 2014-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/ 전성주·전용식 2014.5

- 2014-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/ 전용식·윤성훈·채원영 2014.5
- 2014-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/ 조용운·오승연·김미화 2014.7
- 2014-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/ 김경환·강민규·이해랑 2014.8
- 2014-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전용식·변혜원·정원석·박선영·오승연·이상우·최 원 2014.8
- 2014-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/ 김석영·김세중·김혜란 2014.11
- 2014-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/ 전용식·조영현·채원영 2014.12
- 2015-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/ 박선영·권오경 2015.1
- 2015-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/ 조영현·조재린·김혜란 2015.2
- 2015-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-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- / 최창희·정인영 2015.3
- 2015-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/ 이태열·황진태·이선주 2015.3
- 2015-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동향분석실 2015.8
- 2015-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/ 오승연·김유미 2015.8
- 2016-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/ 전용식·조영현 2016.2
- 2016-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/ 이승준·민세진 2016.3
- 2016-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/ 김해식·김세중·김현경 2016.4
- 2016-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/ 전용식·송운아·채원영 2016.4
- 2016-5 금융·보험세제연구: 집합투자기구,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/ 정원석·임 준·김유미 2016.5
- 2016-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/ 조재린·황인창·이경아 2016.5
- 2016-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·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/ 이태열·김해식·김현경 2016.5
- 2016-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: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/ 김세중·김혜란 2016.6
- 2016-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/ 동향분석실 2016.8
- 2016-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/ 이기형·김혜란 2016.9
- 2019-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/ 기승도·홍민지 2019.5

■ 이슈보고서

- 2019-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/ 정성희·문혜정 2019.10
- 2020-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/ 윤성훈 2020.1
- 2020-2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/ 김동겸 2020.3

■ 조사자료집

- 2014-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/ 최 원·김세중 2014.6
- 2014-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-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- / 장동식·이정환 2014.8

- 2015-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/ 강성호·정원석·김동점 2015.1
- 2015-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/ 정봉은·이선주 2015.2
- 2015-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: 보험 및 연금 / 변혜원·이해랑 2015.4
- 2015-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/ 박대근·박춘원·이항용 2015.5
- 2015-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/ 전성주·박선영·김유미 2015.5
- 2015-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/ 정원석·김미화 2015.5
- 2015-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/ 김석영·김혜란 2015.12
- 2018-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/ 김세환 2018.2
- 2018-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/ 김세환 2018.12
- 2018-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/ 이상우 2018.12

■ 연차보고서

-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09.4
-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0.3
-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1.3
-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2.3
-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3.3
-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3.12
-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4.12
-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5.12
-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7.1
-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8.1
-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19.1
- 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/ 보험연구원 2020.1

■ 영문발간물

-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/ KIRI, 2008.9
-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/ KIRI, 2009.9
-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/ KIRI, 2010.8
-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/ KIRI, 2011.10
-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/ KIRI, 2012.11
-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/ KIRI, 2013.12
-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/ KIRI, 2014.8
-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/ KIRI, 2015.8
-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/ KIRI, 2016.8

제16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/ KIRI, 2017.8
제17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/ KIRI, 2018.8
제18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/ KIRI, 2019.8
제 7 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/ KIRI, 2014.2
제 8 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/ KIRI, 2014.5
제 9 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/ KIRI, 2014.8
제10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/ KIRI, 2014.10
제11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/ KIRI, 2015.2
제12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/ KIRI, 2015.4
제13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/ KIRI, 2015.8
제14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/ KIRI, 2015.11
제15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/ KIRI, 2016.2
제16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/ KIRI, 2016.6
제17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/ KIRI, 2016.9
제18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/ KIRI, 2016.12
제19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/ KIRI, 2017.2
제20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/ KIRI, 2017.5
제21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/ KIRI, 2017.9
제22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/ KIRI, 2017.11
제23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/ KIRI, 2018.2
제24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/ KIRI, 2018.5
제25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/ KIRI, 2018.8
제26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/ KIRI, 2018.12
제27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/ KIRI, 2019.2
제28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/ KIRI, 2019.4
제29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/ KIRI, 2019.10
제30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/ KIRI, 2019.12
제31호	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/ KIRI, 2020.2

CEO Report

2008-1	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/ 기승도 2008.6
2008-2	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/ 이태열 2008.6
2008-3	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/ 동향분석실 2008.8
2008-4	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/ 류건식·서성민 2008.12
2009-1	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/ 동향분석실 2009.2
2009-2	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/ 류건식·김동겸 2009.3

- 2009-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/ 류건식·이상우 2009.6
- 2009-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/ 류건식·이상우 2009.10
- 2010-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/ 김대환·이상우·김혜란 2010.4
- 2010-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/ 동향분석실 2010.6
- 2010-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/ 오영수 2010.7
- 2010-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/ 김대환·이기형 2010.9
- 2010-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/ 류건식·이상우 2010.9
- 2010-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/ 최형선 2010.11
- 2011-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/ 김동점 2011.2
- 2011-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/ 최형선·김동점 2011.3
- 2011-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/ 동향분석실 2011.7
- 2011-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/ 김대환·류건식 2011.8
- 2012-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/ 동향분석실 2012.8
- 2012-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(안)에 대한 검토 / 조용운·이상우 2012.11
- 2012-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/ 윤성훈·전용식·전성주·채원영 2012.12
- 2012-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(I):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/ 이기형·정인영 2012.12
- 2013-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(II):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/ 김대환·이상우 2013.1
- 2013-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(III):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/ 이승준 2013.3
- 2013-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3.7
- 2013-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/ 전용식·윤성훈 2013.7
- 2014-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4.6
- 2014-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/ 김석영·김세중 2014.6
- 2014-3 『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』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/ 이태열·조재린·황진태·송윤아 2014.7
- 2014-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/ 임준환·황인창·이혜은 2014.10
- 2015-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/ 강성호·류건식·정원석 2015.2
- 2015-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5.6
- 2015-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/ 김석영 2015.10
- 2016-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/ 김석영 2016.1
- 2016-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6.7
- 2016-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/ 황인창·조재린 2016.7
- 2016-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/ 정성희·이태열 2016.9
- 2017-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/ 김해식 2017.2
- 2017-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7.7
- 2017-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/ 류건식·이태열 2017.7

- 2018-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8.7
 2018-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/ 안철경·정인영 2018.7
 2019-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/ 이승준 2019.4
 2019-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/ 동향분석실 2019.7
 2019-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/ 김동겸·정인영 2019.8
 2019-4 저(무)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/ 김규동 2019.12
 2020-1 코로나 19(Covid-19)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/ 김해식·조영현·김석영·노건엽·황인창·김동겸·손민숙 2020.4

■ Insurance Business Report

-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/ 류건식·김동겸 2008.2
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/ 이경희 2008.6
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/ 이기형 2008.6
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/ 오영수 2008.6
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/ 안철경·권오경 2008.7
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/ 류건식·김동겸 2008.7
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/ 진 익 2008.7
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/ 이경희·서성민 2008.9

■ 간행물

- 보험동향 / 연 4회
 ○ 보험금융연구 / 연 4회

※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iri.or.kr>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『도서회원 가입안내』

회원 및 제공자료

	법인회원	특별회원	개인회원
연회비	₩ 300,000원	₩ 150,000원	₩ 150,000원
제공자료	- 연구보고서 - 기타보고서 - 연속간행물 · 보험금융연구 · 보험동향 · KIRI 포커스 모음집 · KIRI 이슈 모음집 · KOREA INSURANCE INDUSTRY	- 연구보고서 - 기타보고서 - 연속간행물 · 보험금융연구 · 보험동향 · KIRI 포커스 모음집 · KIRI 이슈 모음집 · KOREA INSURANCE INDUSTRY	- 연구보고서 - 기타보고서 - 연속간행물 · 보험금융연구 · 보험동향 · KIRI 포커스 모음집 · KIRI 이슈 모음집 · KOREA INSURANCE INDUSTRY
	- 영문연차보고서	-	-

※ 특별회원 가입대상 :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

가입문의

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

전화 : (02) 3775 - 9113 팩스 : (02) 3775 - 9102

회비납입방법

- 무통장입금 : 국민은행 (400401 - 01 - 125198)

예금주 : 보험연구원

가입절차

보험연구원 홈페이지(www.kiri.or.kr)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·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.

자료구입처

서울 : 보험연구원 자료실 (02-3775-9113 / lsy@kiri.or.kr)

『보험동향』 2020년 봄호 (통권 93호)

발행일	2020년 5월
발행인	안 철 경
발행처	보 험 연 구 원
등 록	2016년 10월 7일(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)
주 소	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
연락처	대표전화 / 02-3775-9000
인쇄소	경성문화사 / 02-786-2999

ISSN 1228-310X

정가 10,000원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
동향분석실(☎3775-9095)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

